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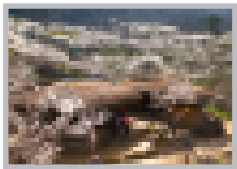
건강한 웃음이여, **[활짝]** 피어나라!
약을 만들기 전에 희망을 먼저 만듭니다!



봄꽃의 향기와 풍미로 녹이는 호흡기질환

빨강, 노랑, 하양, 분홍으로 이제 막 봄 단장을 마친 곱디 고운 봄꽃들이 달콤한 향기를 뽐내며 “꽃놀이 가자!” 우릴 유혹한다. 바라만 봐도 빙그레 웃게 만드는 사랑스런 봄꽃들, ‘눈’으로 ‘코’로 ‘입’으로 세 번 마시는 꽃차로 봄기운을 누려보자. 봄꽃을 원료로 만든 꽃차는 황사 및 건조한 공기로 축농증이나 비염 등 만성 호흡기질환이 보다 악화될 우려되는 이 때, 이러한 질환의 치료 및 증상 조절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 먼저 목련은 소염 작용이 있어 코 막힘 완화 및 축농증이나 비염, 코감기로 코를 훌쩍거릴 때 차로 마시면 좋고, 진달래는 가래가 있거나 천식이 있는 사람에게 특히 좋다. 마시는 방법을 살펴보면, 목련은 말린 꽃봉오리 10g을 약 600cc의 물에서 그 양이 절반이 될 때까지 달인 다음 하루 3번에 걸쳐 나누어 마신다. 다관에 우려 마실 때는 꽃잎 2~3장을 넣고 우려 마시면 그 풍미를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진달래는 깨끗이 씻은 꽃잎의 물기를 바짝 말린 다음, 꽃잎과 꿀을 용기에 겹겹이 하여 15일 정도 재워둔다. 이후 마실 때마다 끓는 물에 이것의 15g 정도를 넣고 풀어서 마시는데, 이때 잣을 띄워 마시기도 한다.

CONTENTS



SPECIAL THEME 춘의 色, 바람과 향의 오색빛갈에 취하다~

06 SPECIAL THEME 1 봄바람에 실려 온 고고한 선비들의 풍류

10 SPECIAL THEME 2 봄 축제, 흥! 樂 興이 어우러진 문화로의 초대

14 SPECIAL THEME 3 봄 향기 그윽한 우리 땅의 야생화 열전

18 이 시대의 명의 강동성심병원 박찬흔 병원장

21 전통문화 지킴이 중요무형문화재 제45호 대금산조 이생강

24 또 다른 날 찾는 세계여행 스페인 안달루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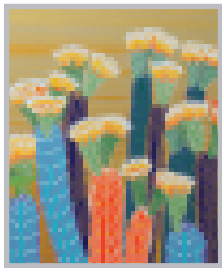
30 미술 이야기 선인장 화가 조은신

36 종가의 맛과 멋 강릉 서지 마을 창녕 조씨 종가

40 Power of SCD 중앙연구소 신약연구팀

44 의학 클리닉 똑똑히 알고 적기에 맞아야 하는 성인 예방접종

47 SAMCHUNDANG NEWS



〈a cactus-beautiful time〉2010, acrylic on canvas, 80 x 73cm
조은신의 작품에서 선인장은 작가 자신을 상징한다. 실존의 위기와 고난이 끊이지 않는 황량한 사막 같은 세상 속에서 무수한 고통이나 악조건들과 부대끼면서도 희망의 꽃을 피우는 선인장으로부터 자기위안과 치유 그리고 강인한 생명 의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두터운 외피, 날카로운 가시, 여리고 부드러운 속살로 형형색색의 생명을 키워가는 선인장의 모습에서 그녀를 볼 수 있다.

春의 色, 바람과 향의 오색빛깔에 취하다~

봄바람이 살랑거리기 시작한다. 봄은 색으로, 향기로, 소리로 우리의 가슴을 보드랍게 간질이며 설레게 한다. 과거 우리 선비들은 풍류길에 들어서 봄기운을 노래했고, 서민들은 왁자지껄 흥에 젖은 축제로 봄을 만끽했다. 또한 우리네 아낙들은 산에 들에 핀 형형색색의 봄꽃 내음을 쫓아 오색빛깔 향연 속에 빠져들었다. 이러한 전통의 봄 풍경은 오늘을 사는 우리도 여전히 함께 따를 수 있어 바로 이 순간 황홀경에 젖어들게 만든다.

SPECIAL THEME 1 _ 봄바람에 실려 온 고고한 선비들의 풍류

SPECIAL THEME 2 _ 봄 축제, 흥! 樂! 興!이 어우러진 문화로의 초대

SPECIAL THEME 3 _ 봄 향기 그윽한 우리 땅의 야생화 열전

봄바람에 실려 온 고고한 선비들의 풍류

글· 사진...남정우...작가

언 땅이 스르르 풀리며 새순이 돋고, 꽃이 핀다. 겨우내 변하지 않을 것 같던 풍광이 변하는 것은 그야말로 순식간이어서, 겨울과 봄의 경계는 늘 경이롭다. 자연에 관한 사람의 경외심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모양이다. 봄날 들쭉이는 마음을 옛 선비를 또한 추스르기 힘들어했다. 더러는 산천을 주유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세상을 등지고 자연 속으로 들어갔으니, 담양 땅에 남아있는 원림과 정자문화는 그 풍류의 끝자락이었다.

배롱나무가 멋들어진
또 하나의 원림정원,
명옥헌

자연 속에서 풍류를 논하다

‘나는 종남(終南)에 별장을 하나 가지고 있다. 별장의 남쪽 담 밖의 돌 틈에 우물을 파서 그 물을 가둔 뒤에 연꽃을 심고 연못 가운데에 괴이하게 생긴 돌을 쌓아서 산 모양을 만들었다. 다시 그 돌 틈 사이사이에 소나무, 화양목 등 작게 생긴 놈만 골라 심었다. (중략) 괴이한 돌과 소나무, 잣나무 사이로 물이 흘러서 두어 자의 절벽 밑으로 떨어지며 맑은 기운이 푸른 산봉우리에 비쳐 밤낮 없이 바라보아도 싫증나지 않으니 노는 데에도 즐거움을 준다고 할 수가 있다. 또한 고요한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배개를 베고 누워 있으면 씩아 하고 쏟아지는 폭포 소리가 마치 요란한 관현악기 소리 같아서 귀를 즐겁게 한다.’

이 글은 조선 예종 때의 문인이었던 채수라는 사람이 그의 저서 「나재집」에 실은 〈석가산폭포기〉의 일부이다. 자신의 정원을 가꾸는 과정과 그 속에서 노니는 즐거움을 적고 있다. 옛 선비들은 유난히 자연을 사랑했던 것 같다. 정원을 만들고 조경을 가꾸어 자연과 가까이 하려 한 것은 신분과 계급을 떠나 당시 사람들의 염원이었던 모양이다.

전라남도 담양 땅에는 유난히 많은 원림정원과 정자들이 남아 있다. 조선 중종 때 신비였던 양산보의 별서정원 소쇄원을 비롯해 명옥헌, 송강정, 식영정, 환벽당, 취가정, 먼



광풍각과 원림

양정, 독수정 등이다. 이 정자와 정원들은 각각의 개별적인 취향과 개성을 지니고 있는데, 하나같이 수려하고 한산한 자연 속에 자리하여 일명 정자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다. 양산보를 비롯하여 김인후, 임억령, 고경명, 정철, 임제, 송순, 김성원, 기대승, 박순 등의 이름난 문인들이 좋은 경치를 찾아 이곳으로 흘러들어 호남 제일의 가단(歌壇)을 이루었던 것이다.

원림정원의 으뜸, 소쇄원

울창한 대숲길을 지나 조금 들어가니 작은 계곡을 사이에 두고 고즈넉한 정자 몇 채가 시야에 들어온다. 들어선 위치나 주변의 조화로움이 예상롭지 않다. 딱히 알맞은 위치, 풍성한 수림, 인위적이지 않은 인공적인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모습이다. 담장 밑으로 흘러드는 맑은 계곡물이 바위를 타고 넘어 연못 위 폭포로 떨어지고 광풍각, 제월당의 아담한 정자가 계곡 주변에 한가로이 서 있다. 단아하다는 표현이 맞을 나무들이 한 폭의 산수화처럼 원림을 이루었으며, 계곡 위에는 외나무다리가 있고 작은 연못은 나무 홀대로 물을 대었다. 자연미를 그대로 간직한 아름다운 정원. 이 곳은 사적 제304호로 지정된 소쇄원이다. 소쇄(瀟灑)는 본래 ‘맑고 깨끗하며 시원함’을 의미한다. 빗소리 ‘소’ 또는 물 맑고 깊을 ‘소’에, 물 뿌릴 ‘쇄’ 또는



소쇄원 제월당



광풍각 뒤면, 나무 흠을 잇대어 물길을 만들었다.

면양정가를 비롯한 500여 수가 넘는 수많은 한시와 국문시가가 이곳에서 지어졌다. 당대에 이 많은 정자와 가옥들을 오가며 문학적 교류도 활발했던 모양이다. 아름다운 경치를 배경으로 당대 지식인들이 드나들었으며 이들을 통해 자연스레 호남 가사문학의 주류가 형성되었다.

깨끗할 '쇄' 라는 뜻을 지녔다. 산기슭 가장 자리의 아늑하고 시원한 곳에 자리 잡았으니 그 이름의 의미가 적절하다. 지금은 물이 적어 비가 많이 내린 뒤에야 그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지만, 옛사람들은 소쇄원을 '소리의 정원' 이라고 표현했다. 물소리, 새 소리, 계곡과 대나무 숲으로 서걱이는 바람 소리. 심지어 빗방울이 파초에 부딪는 소리까지 청각적인 요소를 많이 배려한 주인의 마음씀씀이가 엿보인다.

소쇄원은 양산보(1503~1577)가 만든 조선 중기의 대표적 별서정원이다. 16세기 무렵은 당쟁이 매우 극심했던 시기로 각종 사

화들이 붓물처럼 터져 나왔다. 이 와중에 많은 선비들이 권력에서 밀려나 죽거나 혹은 고향으로 발길을 돌렸는데 대부분 자연에 파묻혀 세월을 보냈다. 양산보도 그중 한사람이었다. 그는 조선 중종 때 기묘사화로 세상을 달리한 조광조의 제자였다. 스승을 따라 서울로 올라가 학문을 배우던 그는 사화로 인해 스승이 화를 당하자 미련 없이 고향 땅 담양으로 내려왔다. 어렸을 때 그는 마을 뒤 계곡에서 놀다가 물오리를 따라 지금의 소쇄원이 있는 곳까지 올라온 적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아름다운 계곡에 집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소쇄원은 양

산보가 30대부터 짓기 시작하여 40대에 완성되었다. 그는 소쇄원을 조성할 때 언덕, 골짜기, 돌, 못 등 하나하나에 자신이 직접 간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쇄원을 팔지도 말고 어리석은 후손에게 물려주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기까지 하였다. 소쇄원은 자연스러운 한국 정원의 특색을 무엇보다 잘 간직하고 있다.

가사문학의 산실- 송강정과 식영정, 환벽당
담양의 정자와 정원들이 밀집되어 있는 이곳은 가사문학지로도 불린다. 정원의 중심이 소쇄원이라면, 가사문학의 중심인물은

송강 정철(1536~1593)이 되겠다. 담양군 고서면 원강리에 자리한 송강정은 정철이 4년간 머물면서 우리나라 가사문학의 대표작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을 지은 장소다.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밀려났던 정철은 마흔 아홉 되던 해인 선조 17년(1584), 이곳으로 내려와 정자를 짓고 지냈다. 정철이 담양과 인연을 맺은 것은 그의 나이 16세 때였다. 명문가의 자제로 유복하게 지냈던 정철은 10세 때 을사사화가 터지면서 끝이 났다. 아버지는 함경도를 거쳐 다시 경상도로 유배되었고 어린 정철은 아버지를 따라 북으로 남으로 떠돌았다. 6년의 유배에서 풀려난 그의 아버지는 가족들을 이끌고 할아버지의 산소가 있는 담양 땅으로 내려왔다. 이에 담양 생활은 송강의 일생에서 안정적이며 따스한 시기였다. 호남 사림의 학자들인 기대승, 김인후, 송순 등으로부터 학문을 배웠고, 임억령에게는 시를 배웠으며, 담양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시인의 자질을 길렀다. 어릴 적 정철이 살던 곳은 소쇄원 부근의 지실마을인데, 그 주변의 식영정과 환벽당, 취가정 등이 송강정과 더불어 가사문학의 산실이 되겠다.

한편 정철의 스승이기도 했던 송순 또한 당쟁을 피해 담양에 칩거했으니 그의 정자



담양에 적힌 소쇄처사 양산보의 글귀



제월당 대들보에 걸린 소쇄원 48영가

는 면양정이다. 대사헌과 이조참판 등을 지낸 그는 이곳에서 후학들을 가르치며 시 짓기에 열중했다. 면양정가를 비롯한 500여 수가 넘는 수많은 한시와 국문시가가 이곳에서 지어졌다. 당대에 이 많은 정자와 가옥

들을 오가며 문학적 교류도 활발했던 모양이다. 아름다운 경치를 배경으로 당대 지식인들이 드나들었으며 이들을 통해 자연스레 호남 가사문학의 주류가 형성되었다. 지금도 각 정자들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들이 남긴 수많은 시구들을 볼 수 있다. 어디를 가든 정자 대들보에 주르르 걸린 현판 속에서 그들의 이름을 쉬이 찾을 수 있다. 현판들은 주로 소쇄원의 마흔여덟 가지 아름다움을 노래한 '소쇄원 48영가' 처럼 각 정자나 정원의 아름다운 풍광을 노래하고 있다.

따스한 봄별자락을 따라 시 한 수, 노래 한 가락 지으려, 과거 선비를 따라 한나절쯤 정자 속에 파묻혀 지내면 어떨지……. 주루룩 쏟아지는 햇살에 백일몽에라도 젖고 싶은 봄, 봄, 봄이로다. ☺

'걸음걸음 물결을 보며 걷자니
한 걸음에 시 한 수 생각은 깊어지는데
흐르는 물의 근원을 알 수 없으니
물끄러미 담장 밑 계류만 바라보네.'

〈소쇄원 48영가〉 중에서 김인후의 글



가사문학박물관에 전시된 그림 - 정자에서 풍류를 즐기는 내용이다.



봄 축제, 그들의 긴 행렬에서 신명이 절로 느껴진다.

봄 축제, 喜! 樂! 興!이 어우러진 문화로의 초대

글... 김흥우...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희곡작가 사진... corein

봄은 바야흐로 축제의 계절이라 할 만하다. 향기를 따라 코끝을 향하면 봄꽃과 함께 오색 빛깔로 물든 꽃 축제의 현장을 향유할 수 있고, 장단을 쫓다 보면 신명나는 굿과 함께 한 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천제의 모습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역사적 인물이나 그 흔적을 기리는 독특한 색깔을 지닌 축제 또한 있어 우리의 눈을 즐겁고도 바쁘게 만든다. 이러한 봄! 겨울내 웅크리고 있던 몸을 일으켜 세우고, 절로 흥이 나는 봄 축제 속으로 빠져들어 보자~ 얼썬 !!!

축제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출발했다는 견해와 국가가 형성되면서 시작된 집단 제의(놀이)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시조 단군왕검을 시작으로 왕이 주체가 되어 1년에 걸쳐 일곱 번의 제사를 지냈던 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이다. 당시 천신, 월신, 수신, 화신, 목신, 금신, 토신에게 제의를 지낼 때, 국중대회(國中大會)를 열어 일제히 노래(於阿歌)를 부르며 화합을 다졌는데 이것이 집단 제의, 곧 ‘대동놀이’의 시작이었다.

이렇듯 축제는 범국가적 행사로 대가야의 개국 신화, 고구려 주몽 설화 등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 볼 수 있으며, 고구려의 ‘동맹’과 신라의 ‘팔관회’, ‘연등회’ 등이 그 대표적인 범국가적 의례로 여겨진다. 그러나 팔관회와 연등회는 불교가 유입되면서 정착된 행사였기에 토속 종교로 자연신을 모시던 때와는 그 제의의 내용이나 성격이 달랐다. 이후 신라의 것을 계승한 고려는 ‘자신의 소원은 팔관회와 연등회에 있다’는 왕권의 강한 의지에 따라 팔관을 천령·오악·명산·대전·용신에 봉사하는 것이라 여겼다.

‘연등회’는 대궐에서 왕사(王寺)까지 이르는 거리 양쪽에 수만 개의 등을 밝히는 집단 놀이 겸 의례로서, 고려시대에는 연등회를 근간으로 불교와 관련된 다양한 세시풍속이 만들어져 오늘에 이르렀다. 설날, 삼짇날, 단오, 한식, 유두, 칠석, 백중, 동지, 제석 등이 이렇게 탄생된 세시풍속이다. 축제는 몇 사람이나 가족 단위로 이뤄지는 소규모의 놀이나 제사가 아니라, 여러 집단의 참여로 하나를 이루는 종교·문화·시대·사회적 의미가 포함된 대규모의 현장성 있는 종합 문화 행사다. 이에 화려한 ‘팔관회’나 ‘연등회’ 행사가 끝나면 ‘삼화향놀이’가 이어졌는데, 이를 통해 함께 어우러져 즐기는 춤과 노래, 잡기가 발전할 수 있었다. 이밖



무당의 곳으로 축제의 문을 열기 시작한다.

에도 선달 말일에는 고려 조정이 직접 나서 목은해의 마귀와 사신을 쫓아내려고 베푼 ‘나례’ (중국에서 전래됨)를 펼쳐, 신바람으로 나라의 안녕을 빌고 잡희로 흥을 돋우었다.

역사와 함께 변화에 변화를 거듭해 온 우리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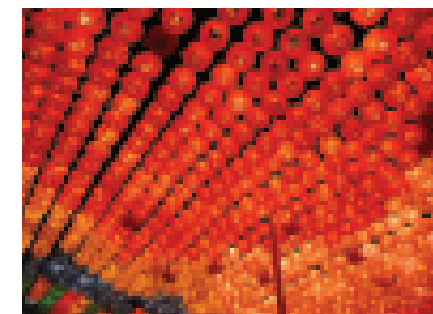
유교 국가였던 조선은 불교적 색이 짙던 ‘팔관회’나 ‘연등회’는 철저히 없애고, 국가적 연발 의례인 ‘나례’를 행하고자 나례도감까지 두어 이를 장려하였다. 또한 곳곳에 ‘동제’나 ‘별신굿’ 등이 생기게 되면서 축제 및 행사의 주체도 국가가 아닌 마을이 되었고, 그 목적도 국가 차원의 안녕이 아니라 자신의 마을을 스스로 보호하고 가정

깃든 액을 쫓기 위한 사적인 것으로 변모되었다. 즉 국가적 차원의 축제에서 서민을 위한 축제로의 전환이 이뤄진 것이다.

나례의 중심은 ‘탈놀이’가 되었고 ‘농악’과 ‘판굿’은 마을사람이면 누구든지 어울려 즐길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이밖에도 조선시대에는 어느 곳에서나 서낭당과 무당을 쉽게 접할 수 있어 자신들의 소원이나 마을의 안녕을 위해 신을 모셔 놓고 자유롭게 제의를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기우제’만큼은 오랜 세월 지켜 온 범국가적 전통을 지켜 국가 차원의 행사를 유지했다.

조선조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서민 축제는 우리나라 방방곡곡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매해 봄(가을)마다 영동 지방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한 해의 평안을 바라며 성황리에 개최 중인 산신제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1910년대를 전후로 일본에 의한 국권상실에 따라 모든 축제는 중단되었다. 일본의 문화말살 정책 때문이었다. 36년 동안 신사참배를 강요당하다 해방을 맞이하니 ‘해방 축제’를 시작으로 여러 다양한 축제가 그 부활의 기미를 보였지만, 36년이란



절을 가득 메운 오색 빛깔의 연등들

세월의 공백은 쉬이 채워지지 않았다. 이후 1960년, 새로운 근대화의 바람이 일면서 우리의 축제는 제2의 부흥기를 맞이하였고 그 간의 한풀이 차원에서 다채로운 축제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보는 축제를 넘어 함께 어우러지는 신명의 축제로~

축제는 보는 축제에서 시대를 넘으며 참여의 축제로 변모하게 되었다. 따라서 축제의 참가자는 축제 속에서 개인의 건강과 가정의 안녕을 직접 기원할 수 있으며, 많은 이들과 함께 제의에 도취된 순간 비로소 축제의 진면목을 누릴 수 있다.

가장 먼저 제의적 축제의 현장인 ‘서해안 풍어제’를 살펴보자. 바다의 어부들에게는 무사고와 풍어가 가장 큰 소망이었다. 따라서 주민들은 풍어제(바다신에게 드리는 제사)를 통해 거친 바다를 향한 의지를 다지고

한 해 동안의 무사고를 위해 신을 향해 기원하였다. 가장 볼거리가 많은 풍어제로 ‘서해안 풍어제’를 이야기하는데, 이는 해서지방에 전래되어 온 ‘대동굿’과 ‘배연신굿’이 차례로 어우러진 축제를 말한다.

2009년에 행해진 ‘서해안 풍어제’의 진행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배연신굿’은 팔미도 부근 해상 배치선상에서 그 출발을 알리는 고사를 시작으로 ‘상산맞이’, ‘배치기’, ‘부정풀이’, ‘초부정’, ‘초감홍’, ‘영정물림’, ‘소당제석’, ‘소대감’, ‘타살굿’, ‘똥산 장군거리’, ‘성수거리’, ‘대감놀이’, ‘그물올림’, ‘영산할아밤·할맘거리’, ‘쫓겨주는 굿’, ‘다리배용신굿’, ‘강변굿’ 등의 순서로 다양한 굿과 놀이가 진행된다. 당시 김금화 주무가 나서 풍어제를 지휘하였는데, 그가 ‘소당제석’ 거리를 통해 모시는 소당애기씨는 배를 지키는 수호신으로 어부들이 가장 많이 의지하는 수호신

이다. ‘서해안 풍어제’ 중 ‘대감놀이’와 ‘영산할아밤·할맘 거리’ 순서에 이르면 비로소 난장판을 이루며 축제의 한바탕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때 풍어제의 절정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대동굿’은 당굿과 마을 안을 도는 ‘세경굿’, 바다에 떠도는 원혼을 달래는 ‘강변용신굿’ 등으로 크게 구성되는데, 전체 진행 순서는 김경희의 ‘신청올림’, 김금화의 ‘성산맞이’, ‘세경굿’ 등 모두 25과장으로 이루어져 있어 온종일이 걸려야 끝이 난다. 또한 굿과 과장 사이에는 어부들의 ‘배치기 소리’, ‘노동요’, ‘민요’ 등이 함께 불려져 그 여흥을 돋운다.

청도 국제 소싸움 축제와

온갖 축제의 정수 와룡문화제

축제는 향토성이 짙고 세시풍속과 어우러져 보다 많은 이들을 도취시키고 화합하

도록 만든다. 예로부터 소싸움으로 유명한 청도는 옛 정취를 고이 간직한 매우 청정한 고장이다.

‘소싸움놀이’는 삼국시대부터 한가위에 겨루는 게 보통이었으나 청도는 3월초에 ‘국제 소싸움 축제’를 펼치며, 지역 주민을 비롯해 전국 각지로부터 축제 손님들 불러 모은다.

청도를 대표하는 ‘국제 소싸움 축제’의 면면을 살펴보면, 소싸움을 위한 싸움소의 임자는 축제 당일 아침에 소를 깨끗이 목욕시킨 후 여러 가지 천으로 꼰 고삐를 달아 주고, 각양각색의 형겅으로 소의 머리를 장식하며 목에는 커다란 방울을 달아준다. 또



청도의 자랑, 청도 국제 소싸움 축제



벚꽃의 향기에 취해 사진 찍기에 여념 없는 벚꽃 축제 속의 그들

한 소의 임자는 의복을 단정히 한 뒤 자신의 머리 위에 붉은 수건을 옆으로 비껴 동이며, 오른편 허리에는 오색의 실로 수를 놓은 주머니를 찬 채 소를 몰고 싸움터로 나온다. 이후 싸움소는 무게에 따라 각 체급으로 나뉘어 축제 기간 내내 여러 소들과 함께 본격적인 대결을 펼치게 된다. 싸움터에는 많은 구경꾼 외에 자기 마을의 소를 응원하기 위해 온 각 동네 대표 농악대가 신명나게 풍악을 울린다.

또한 축제는 그 지역에 살아 숨 쉬는 역사와 특유의 지역색이 한데 어우러져 역사의 흔적을 오래도록 기억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그 예로 ‘와룡문화제’를 꼽을 수 있다. ‘와룡문화제’는 옛 삼천포시와 사천군이 통합된 1995년 5월 10일 사천시의 탄생을 기념으로 시작된 역사문화 축제다. 와룡산은 고려 현종이 유년시절을 보낸 곳으로, 용이 승천하기 위해 누워서 태를 기다리는 형상을 가진 와룡산에서 기거하다 실제로 왕이 되었다는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와룡문화제’라 이름 붙이게 되었다. 현재 와룡문화

제(과거 5월 10일 시행)는 ‘선진리성 벚꽃 축제’와 통합되면서 4월초로 기간을 옮겨 새로운 모습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였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으로 대선을 침몰시킨 사천해전이 있던 용현면 선진리성은 성내 1000여 그루의 벚꽃이 만개할 때면 그 모습이 실로 장관이다. 4월초 나흘간에 걸쳐 진행되는 축제는 공연, 전시, 경연, 체험 등 7개 분야 43개의 프로그램으로 이뤄져 있다. 종합축제 양상의 ‘와룡문화제’는 제의성을 가미한 시민 퍼레이드, 향토성 짙은 ‘고려조 지방현감 민정순시 재현’과 용의 몸체에 소망을 담은 ‘용비늘 달기’ 프로그램이 특히 시선을 끈다.

축제는 앞서 말한 것처럼 ‘보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축제의 현장 속에 직접 들어가 보고 듣고 가슴으로 신명과 어우러짐의 흥을 느껴야만 제대로 즐길 수 있다. 이제 막 꽃잎을 띄우기 시작한 봄날, 다채로운 우리나라 축제 가운데 하나에 빠져 그 축제의 중심에 서보는 것은 어떨지 조심스레 권해본다. ☺



풍어제를 위한 고깃배의 화려한 깃발들이 봄바람에 나부낀다.



봄 향기 그윽한 우리 땅의 야생화 열전

글 · 사진... 김태정... 한국야생화연구소 소장



모데미풀 우리나라 남부, 중부지방에 자라는 환경부 지정 멸종 위기 식물로서, 높이는 20~40cm에 달하며 5~6월에 흰 꽃이 핀다.

옛 어느 시인은 ‘봄이 내 앞에 가까이 오기가
싫더니 금새 멀리 달아나 버리더라’ 라는 한
구절로 봄을 이야기했다.

무엇이 급한지 봄은 이처럼 시작되자마자 자꾸
북쪽으로 달아나버리듯 재빨리 이동한다. 봄.
산과 들에서 가장 먼저 눈과 얼음을 뚫고 귀여운
작은 꽃망울을 터뜨리는 복수초, 너도바람꽃,
변산바람꽃, 노루귀, 머위, 광대나물, 개불알풀,
꽃다지, 냉이, 별꽃 등 이 모두가 우리에게
봄소식을 전해주는 작은 전령사들이다.

앞서 열거한 봄꽃들과 함께 생강나무, 산수
유, 히어리, 개나리, 미선나무, 풍년화 꽃들
이 가장 앞서서 꽃을 피우지만, 대개 봄이
면 매화나 벚꽃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 매
년 1월 10일 정도면 제주도 서귀포에서 이
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새하얀 매화들
을 처음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매화의
화기는 차차 북상하여 거제도는 2월, 광양
청매실농원에서는 3월 중순께 꽃이 피며,
중부지방에 해당하는 경기도나 서울은 4월
초순께나 되어야 청초한 매화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허나 때때로 서울 같은 도심에서
약간 일찍인 3월 하순경에 이미 피기 시작
한 매화들을 더러 볼 수 있는데, 이는 반가
운 일이 아니다. 서울이 지구온난화 현상의
영향권 아래 있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복수초 우리나라 각 지방의 산과 들, 숲속 등의 그늘에서
자라고, 높이는 30~40cm로 3~5월에 노란색 꽃이 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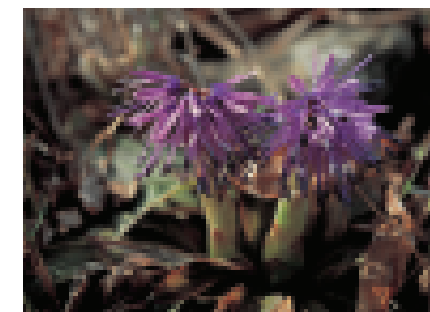
평의바람꽃 우리나라 남부, 중부, 북부지방의 산기슭 풀짜기 숲속에서 자라고, 높이는 15~20cm로 4~6월에 흰 꽃이 핀다.

4월부터 5월까지 봄이 만드는

야생화와 나무의 공존 주기

4월에 접어들면서 많은 풀과 나무들이 앞
다투어 꽃을 피워내며 우리 땅 곳곳을 형형
색색의 오색찬란함으로 물들여 봄꽃의 향
연을 시작하지만, 중부 강원산간 지역은 이
시기에 눈이 쌓이는 곳도 있고 기온 또한
낮아서 약 1개월 가량 늦게 꽃이 피기 시작
한다. 특히 DMZ 등의 높은 고지는 5월이
되어야 남아 있는 잔설을 뚫고 복수초, 노
루귀, 너도바람꽃, 한계령풀, 얼레지, 평의
바람꽃, 홀아비바람꽃 등 많은 봄꽃들이 모
두 피어나기 시작한다. 요맘때 이 주변을
둘러보면 잿빛의 앙상한 나뭇가지만이 오
직 남아 거센 북풍에 여전히 떨고 있으나,
그 밑의 땅바닥에서는 서 있는 나뭇가지에
있이 채 나오기도 전, 사방에 피기 시작한
꽃들 때문에 바람을 타고 전해지는 봄꽃의
내음을 은근히 향유할 수 있다.

필자는 오랫동안 계절 따라 벌떼들과 같
이 이곳저곳으로 이동하다 보니, 바로 나의
발아래에서 이들이 자연의 순리에 따라 크
고 작은 생명체로서 살아가고 자손을 번식
하며 열매를 맺는 그들 나름의 법칙을 배울
수 있었다. 이 무렵이면 중부지방, 남부지



처녀치마 전국 각지의 산기슭에 자라고, 높이 10~30cm로
4월에 적자색 꽃이 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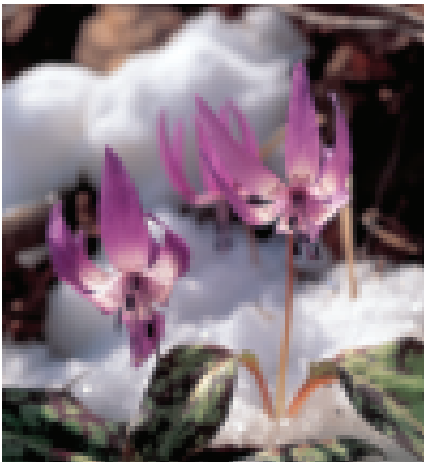


큰연령초 우리나라 중부 이북지방과 울릉도의 산지 숲속에서 자라며, 30cm 높이 안팎으로 5~6월에 흰 꽃이 핀다.

방의 낮은 곳은 어느새 큰 나무들이 푸른 새싹을 내밀고 지금까지 우리가 봄꽃 너희에게 봄날 주인공의 자리를 양보했으니 이제는 우리 큰 나무들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겠다며 연한 녹색의 새싹을 차츰차츰 짙은 녹색으로 모두 물들여간다.

DMZ 이남 지역에 넓은 보금자리를 트는 다채로운 봄야생화

우리 땅의 봄 야생화들은 흰색, 노란색, 분홍색, 붉은색, 푸른색 꽃 순으로 특히나 봄꽃들은 나뭇잎과 풀잎이 우거지지 않을 때 피기 시작하기 때문에 꽃의 종류가 유난히도 많아 보인다. 허나 실제 종의 숫자는 여름꽃이 더 많다. DMZ 이남 지역 중 봄꽃이 풍부하게 많이 피는 곳으로는 소백산, 태백



얼레지 우리나라 내륙지방의 깊은 산골짜기와 산기슭 비옥한 곳에서 자라고, 높이는 25cm 안팎으로 4~5월에 연한 자주색 바탕에 짙은 자주색 W자 무늬가 있는 꽃이 핀다.

산, 금대봉, 덕유산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 가장 많은 봄꽃 종류가 모이는 4~5월 하순께는 산마루까지 야생화들이 절정을 이루

며 대자연의 화원을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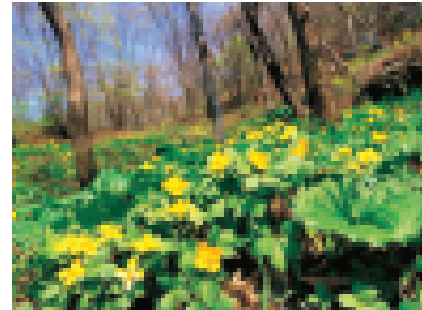
이곳 산들은 해발고도가 1500m 안팎으로 그다지 높지 않으나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며, 봄 늦게까지도 다른 곳에 비해 낮은 기온을 유지하고, 가을철에는 대륙성 기압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에 북쪽으로부터 대기 속에 날리는 씨들이 덕유산을 제외한 소백, 태백, 함백(금대봉) 상공에서 많이 낙하를 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비해 더 많은 식물의 종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원래 야생화들은 더운 곳에서는 색깔과 모양이 또렷하지 못하지만 서늘한 지역에서 피는 꽃들은 더 짙은 색깔과 정갈한 모양으로 피어나기 때문에 늦은 봄에는 이러한 곳을 찾는 게 좋다. 특히 다음의 지역은 소위 백두대간 큰 줄기의 끝 지점에 해당되며, 봄

철에는 남녘의 더운 기압과 동쪽에서 불어오는 큰 해양성 기류 그리고 대륙에서 퍼져나오는 대륙성 큰 기압대가 만나 커다란 힘겨루기를 하는 곳이다. 따라서 이같은 다양한 요인과 영향으로 많은 씨들이 이 지점에 낙하하게 되는 것이다.

뿌리를 잃은 토종 민들레, 우리가 모르는 우리 민들레

봄이 되면 온종일 꽃 이름 때문에 많은 전화가 걸려온다. 1980년대에는 민들레꽃의 이름도 모른 채, 난생 처음 보는 희귀 야생화가 피었다고 빨리 카메라를 들고 오라 한 적도 있다. 서울이나 도시의 아파트 주변 및 길가에서 봄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꽃 중의 하나가 민들레꽃이지만, 정작 우리 토종 민들레는 모두 깊은 산간 마을로 떠나버리고 흔히 만나는 민들레 모두는 유럽 쪽에서 들어온 귀화식물 서양 민들레다. 서양 민들레꽃은 3~10월까지 시도 때도 없이 계속 피어나며 번식력과 생명력이 무엇보다 강인한 악질적인 귀화식물 중 하나이다. 우리의 토종 민들레는 민들레, 흰민들레, 산민들레, 쯤민들레 등이 있으며, 모두 4~5월에 꽃이 피고 6월이 되면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우리 민들레들은 점차 그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우리 민들레꽃이 일편단심으로 토종 신랑 꽃가루가 찾아와야만 대문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이들은 계속 절개를 지키다 끝끝내 토종 민들레 꽃가루가 날아오지 않으면 급기야는 처녀임신을 하여 거짓 씨를 만들어 봄바람에 날려 보내게 된다. 그러나 그 씨는 달걀의 무정란처럼 새싹이 트지 않기 때문에 토종 민들레의 개체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서양민들레의 꽃가루는 토종 민들레나 흰민들레 등 민들레꽃만 있으면 찾아들어 대문을 두드리고 다닌다. 사람의 세계에도 다문화가정이라든지 국제 결혼이 하나의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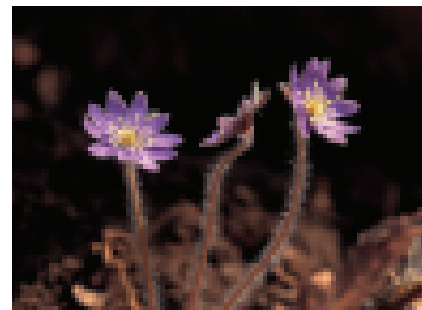
피나들 우리나라 중부지방 경기도 이북의 산 숲속에서 자라며, 높이가 30cm 안팎이고 4~5월에 노란색 꽃이 핀다.



개구리갈 우리나라 제주도와 중부지방 강원도 태백, 정선 지역의 높은 산 숲속에서 자란다. 높이는 10~30cm이고 4~5월에 노란색 꽃이 핀다.

현상으로 자리 잡아가는 가운데, 요즘은 민들레들도 다문화 가정을 꾸리려 흰민들레꽃이 노란 서양민들레꽃의 꽃가루를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간혹 길가에서 흰민들레꽃의 무리 중 노란색 무늬가 있는 흰노랑민들레꽃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동서양민들레 글로벌 수정의 탄생물이다.

또 어느 해 봄인가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다급한 목소리로 전남 영광 원자력 발전소 근처에 살고 있는 80살 노인이라고 소개하며, “나가 80년을 넘게 살았지만 평생 민들레꽃이 흰 꽃으로 피는 것은 처음 봤소.”라고 운을 떼었다. 이에 우리 토종 민



노루귀 우리나라 전국 각지의 산기슭 숲속에서 자라고, 높이는 8~20cm로 4~5월에 자주색·흰색·붉은색 등의 꽃이 핀다.

들레는 노란색과 흰색 등으로 이뤄져 있다며 답했으나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지! 나가 농사꾼이랑께, 민들레꽃은 잘 알고 있소! 이곳 옆에 원자력 발전소가 가까이 있소. 때문에 방사능에 오염되어 노랑 민들레꽃이 흰 꽃으로 피어나는 것이 심히 우려되는 바, 빨리 마스크에 나가 민들레가 방사능에 오염되어 흰 꽃으로 영광 지역에서 핀다고 하시오!”라며 전화를 끊었다. 지금도 봄에 흰민들레꽃만 보면 영광 원자력 발전소가 제일 먼저 떠오른다.

우리 땅에는 풀과 나무(초본과 목본)를 합쳐 소위 우리 식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남북한 합쳐 모두 약 4,500여 종이라고 기록한다. 그러나 이중 10%는 멸종으로 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외지로부터 반입되거나 또는 자연 발생적으로 들어온 외래종·귀화식물은 근 1,500여 종에 이르며, 이들 모두가 우리 토양에서 함께 자라고 있어 약 6,000여 종의 식물이 대한민국을 보급자리로 여겨 살고 있다. 또한 원예종 같은 식물은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머지않아 연초록색이 검푸른 실록으로 바뀌면서 봄은 멀리 북쪽으로 올라갈 것이다. 바쁘거나 생활에 쫓겨 봄꽃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4~5월에는 강원도의 평창군 오대산 월정사 입구에 있는 ‘한국자생식물원(033-332-7069)’을 찾아보면 좋겠다. 3~4월에 보지 못한 야생화와 사라져 가는 희귀 야생화들을 한눈에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곳은 해발고도 700여 미터의 낮은 기온을 유지하는 곳으로 늦게까지 눈이 많이 내리는 깊은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어 낮은 곳보다 봄꽃이 1개월 이상 늦게 피며 더구나 멸종 위기나 사라져 가는 귀한 야생화들을 집중적으로 모아 관리하는 환경부 지정의 장소이기도 하다. 야생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탐방객이나 다양한 봄꽃을 만나고 싶은 이들에게 적격의 장소가 되리라 생각된다. ☎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 좋은 스승으로 기억되고 싶다

강동성심병원 박찬훈 병원장

1986년에 개원한 강동성심병원은 적은 규모이나 알찬 병원이다. 2007년부터 ‘비전 007’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적극적으로 선진 의료기술을 도입해 의료의 질을 높이고, 건물 증축 등 하드웨어의 개선과 소프트웨어의 개선을 통해 세계적인 의료기관으로 거듭나고자 발돋움 중이다. 특히 이 중심에 박찬훈 병원장이 있었다. 그를 만나 의료 인생과 병원 경영에 대한 고견을 들었다.

글...최수향 사진...Cheese Studio

오롯이 한 길로 품은 의사의 꿈, 마침내 병원장으로 꽃피다

소년 박찬훈은 장차 의사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자랐다. 소년의 부친은 당시 깡촌이었던 충북 진천에서 경기고, 세브란스의대를 나와 고향에서 개업한 화제의 인물이었다. 소년은 외과의였던 부친이 환자를 수술하고 치료하던 모습을 늘 가까이 보았다. 다른 집에는 인삼, 도라지 등을 담은 술병들이 있었지만 그의 집에는 맹장 등 장기를 알코올에 담은 병들이 도열해 있던 것도 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자연스럽게 소년은 의사 이외에 다른 꿈을 키우지 않았다. 외과를 선택한 것도 부친의 영향과 손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이든 잘하고 좋아했기 때문이었다. 박찬훈 원장은 “예전에는 의사하면 외과의였어요. 그레이트 서전(great surgeon)으로 불리며 모든 것은 외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정도였지요.”라며 당시를 회상했다. 그의 세부 전공은 유방암 및 내분비외과다. 유방암을 전공한 것은 그의 가계가 유전성 유방암이었던 까닭이다. 고모 세 분 중 두 분은 유방암, 한 분은 난소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는 학생 때부터 계속 유방암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그러던 펠로우 시절, 이경식 선생님을 만나 자연스럽게 유방암을 세부전공으로 선택하게 되었다. “이경식 선생님은 우리나라 유방암 분야를 이끌어온 분입니다. 그 분은 당시 황금의 팔로 불리셨어요. 그 분에게 수술을 받으면 반드시 살아 돌아온다고 할 정도로 명성이 자자한 분이셨지요.”



1986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그는 1990년 차병원 최초로 외과를 개설하고 외과과장으로 재직하다, 같은 해 강동성심병원과 인연이 닿아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 후 외과과장과 기획실장을 역임하면서 그는 병원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외과과장 재직 시 외과수술 분야의 질적 개선을 위해 전공의 수련 및 타과의 협진 진료 시스템, 수술 후 환자관리 시스템 등을 효과적으로 개선하여 수술환자의 만족도를 크게 높였다. 기획실장으로 재직 중에는 의료 서비스의 양적 확대를 위해 주변 지역병원을 비롯해 의료 수요가 있는 협회나 기관뿐 아니라 3차 의료기관과의 진료 협약도 활발히 추진했다. 이러한 의료의 양적 확대는 중증질환자의 신속한 치료로 이어져 의료 전반의 질적 서비스를 개선시키는 데 시너지 효과를 창출했다. 그후, 2008년 9월부터 그는 강동성심병원 12대 병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New, Trust, Proud로 거듭나고 있는 강동성심병원

그에게 병원 경영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중요 보직을 거치면서 병원 발전에 일익을 담당했던 그는 겸양의 말로 운을 떼다. “경영 수업을 하지 않고 환자만 보고 월급 받던 사람들은 경영을 제대로 모릅니다. 다만 저는 환자를 열심히 보면 병원의 수익 증대는 따라올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병원장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들이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교육 계획을 많이 세웠습니다. 둘째로 직원들이 직장에 만족감을 느끼도록 직원 복지에 신경을 썼고, 셋째로 노후한 병원 시설을 개선해 환자가 좀 더 나은 시설에서 치료받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나아가 환자를 잘 보고 병원 수익 증대로 이어지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은 그의 생각에 맞추어 강동성심병원의 2010 슬로건은 ‘New(새로운) Trust(신뢰받는) Proud(자랑스러운) 강동’이다. New는 고정된 틀과 정해진 환경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환경을 창출하는 것, Trust는 환자가 병원을 믿고 다시 찾는 것, Proud는 일한 만큼 보람을 찾을 수 있는 병원, 가고 싶은 병원이 되는 것이다. 그는 2010 슬로건을 한마디로 말하면 ‘기존의 틀을 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고정된 틀을 탈피한 좋은 조직 문화가 있는 병원이 좋은 병원이 된다고 생각하기에 조직과 직원 화합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다. 가시적인 효과 또한 나타나고 있다. 강동성심병원은 한림대학교의료원 5개 병원 중 최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강동성심병원의 ‘즐거운 단합’이란 조직문화가 그런 평가를 얻게 만든 것이다. 이것은 강동성심병원의 자랑거리이기도 하다. 또 다른 자랑거리는 규모는 작지만 알찬 병원이라는 것. 타 대학병원에 비해 브랜드임은 떨어지지만 실제 면면을 살펴보면 일류 수준의 의료진, 최신의 기자재 등 병원 구성원들이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은 천생 외과의, 박찬흔 병원장

30년 가까운 의사 생활 동안 수많은 에피소드를 경험했을 그에게 기억나는 일을 물었다. 곰곰이 생각하던 그는 “외과의사에게는 순간적으로 신속한 판단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예기치 않은 의료사고나 치료 도중 합병증으로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의사는 자신의 판단 착오, 방심, 자만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는 이런 환자를 겪고 나면 상황을 기피하기보다 왜, 어떻게를 먼저 따져가며 반성했어요. 그런 것들이 의사로서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외과의사는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우스개 말로 구멍을 오래 뚫다 보면 잘 뚫게 되고 가위질도 오래 하면 잘 하잖아요. 그러나 그 이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의학기술의 업데이트를 계속 확보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기술을 쫓아야 되는데 하고 뒤늦게 후회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죠. 환자는 분초를 다투며 생명을 나에게 맡긴 건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도 후배의사나 학생들에게 합병증으로 사망하거나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 시 순간적인 그리고 신속한 판단에 따른 대처법을 귀가 따갑도록 강조하며 가르치고 있다.



“의사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환자입니다. 분초를 다투는 환자는 자신의 생명을 송두리째 의사에게 맡깁니다.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려면 의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해요. 끊임없이 발전하는 의료기술을 익히기 위해 공부하면서 자만하지 말고 방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따뜻한 마음으로 환자를 대하는 의사가 바로 명의라 생각합니다.”

익히 알려져 있듯 그는 우리나라 유방암 치료 분야의 권위자이다. 동료 의사들이 가족 중 유방질환이 있을 때 진료를 부탁하고 싶어 하는 의사로 제일 먼저 그를 뽑을 정도다. 1994년에는 유방암 치료 분야의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아 한림대학교의료원 학술대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가 생각하는 명의란 어떤 의사일까. “의사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환자입니다. 분초를 다투는 환자는 자신의 생명을 송두리째 의사에게 맡깁니다.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려면 의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해요. 끊임없이 발전하는 의료기술을 익히기 위해 공부하면서 자만하지도 방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따뜻한 마음으로 환자를 대하는 의사가 바로 명의라 생각합니다.”

그에게는 작은 소망이 하나 있다. 바로 후배의사와 학생들에게 좋은 스승으로 기억되고 싶은 것. 외과의 한 길을 걸으며 유방암 분야에 일가를 이룬 박찬흔 병원장, 그는 그가 가진 모든 노하우를 쏟아 가르친 학생들이 모두 훌륭한 외과의로 성장하길 또한 소망한다. 강동성심병원, 그곳에 가면 열정적으로 일하며 진료하는 박찬흔 병원장을 만날 수 있다. ☎

전통문화 지킴이



‘퓨전국악에서 병아리단소까지’

중요무형문화재 제45호 대금산조 이생강

삶에는 전형적인 상황들이 존재한다. 그만큼 많은 원형들이 있다. 인류에게 누대로 상속되어온 집단 감성. 이생강(73)은 ‘대금산조의 원형’을 구현하는 명인이다. 소식적부터 하루 4시간씩 자면서 부단히 연마한 천의무봉의 기력으로 가요, 재즈, 팝 등 모든 장르를 아우른다. 품 넓고 속 깊은 그의 연주, 음악인생 65년……. 그가 살아온 시간은 무엇을 하든 대금의 본령에 이르기 위한 길이었음을 그 커다란 울림이 영혼의 가느다란 선율을 두드린다.

글...김지영 사진...Cheese Studio

때마침 봄비가 내린다. 촉촉이 젖은 세상은 대금소리 번지기 좋은 배경이다. 대금으로 연주하는 '목포의 눈물', 굽이쳐 흐르는 절절한 가락이 구성지다. '섬 집 아기' 가락에 엄마가 그림다. '아리랑' 은 애잔하다. 들을수록 꿈틀댄다. 겨우내 언 땅을 뚫고 솟아오르는 연둣빛 싹처럼 가슴에 움트는 것이 있으니 영혼의 인기척이라고 해도 좋을까. 나란히 놓인 대금, 소금, 통소, 단소 등 일곱 가지 우리 목관악기가 그의 입김을 통과하면 이렇듯 심금을 건드린다. 이 시대 최고 대금명인 이생강의 소리다.

“국악에 대한 관심이 미약하죠. 일제강점기의 문화말살 정책이 그 요인이예요. 우리 것을 없애려고 외국음악을 퍼뜨렸어요. 일반인이 모르는 것일 텐데, 대금은 정악만을 연주하는 정악대금과 민속악인 산조만을 연주하는 산조대금의 두 종류가 있어요. 정악대금은 국가의 제도적 지원을 받고 내려왔고, 민속악인 산조대금은 일대일로 전수됐지요. 판소리, 춤, 사물놀이, 민요 등 다양한 전통음악에서 기악은 어디라도 약방의 감초처럼 넘나들어요. 관악기가 음악을 리드해 나가는데 그중에도 대금이 으뜸이죠.”

팔도가락 익혀 세계 무대에 서다 이생강은 반주악기로만 여겨왔던 대금을 독주악기의 반열로 올려놓은 장본인이다. 그와 대금의 인연은 아버지의 무릎에서 시작됐다. 일제강점기에 가족들과 일본으로 건너가 운전을 하던 아버지는 고된 하루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피리를 불며 그리움을 달랬다. 아버지의 품에서 놀던 어린 생강은 호기심에 아버지의 피리를 불었다. 소리가 남달랐다. 단소는 5살, 대금은 8살 때부터 늘 입에 대고 다녔다. 해방을 맞아 9살에 가족들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으나 곧 6·25가 터졌다. 마침 전국 각지의 악기명인이 피란 차 부산에 모여들자 그는 뜻밖에 행운을 누렸다. 하루 종일 6명의 스승을 찾아 뛰어다니며 전국 팔도의 가락을 배우게 된 것. 스승이 23명에 이르렀다. 단소, 소금, 대금, 통소, 태평소, 쌍피리, 서양피리 못 부는 악기가 없었다.

“유년기엔 뭇 모르고 했고 소년이 되면서 열심히 해야겠다고 결심했죠. 밥 먹고 운동 잠깐 하는 것 외에는 그냥 연습만 했어요. 하루 종일 악기가 입을 막고 있어서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해. 그 때 못한 말 하려고, 허허허…….”



구수한 너털웃음이 터지더니 조곤조곤 이야기가 계속됐다. 그랬다. 다 바쳤다. 여태껏 하루 4시간씩 자면서 미친 듯이 불었으나 갈수록 천대받고 소외됐다. 서양음악만 알아주는 풍토에 크게 회의했다. 그렇게 방황하던 스물 넷 젊은 국악인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1960년 5월 17일 국제민속예술제에 참가하는 단원들과 함께 반주단의 자격으로 프랑스 파리에 가게 된 것이다. 그런데 당시 한 무용 출연자가 급작스런 맹장수술로 무대에 나서지 못하자 15분 정도 그가 대신 무대에 서게 되었다. 처음으로 이생강의 대금 산조를 대중 앞에 선보일 기쁨 마련한 것이었다.

“반응이 굉장했어요. 마치 수십만 마리의 꿀벌들이 꽃을 나르기 위해 날아다니는 듯한 소리다, 신의 소리, 영혼의 소리라고 격찬을 받았죠. 이태리, 오스트리아, 독일 등 세계적인 음악도시에서도 열렬한 평가를 받았죠. 힘이 났죠. 세계에 통하는구나. 그 때 파리에 가지 않았으면 대금을 그만뒀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국악 엔터테인먼트 그룹 회장이다” 자신감을 얻은 그는 한국에 돌아와 더욱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가수 바비킴, 기타 연주자 김광석, 유진박, 길옥윤 등 다양한 분야의 음악인과 작업을 통해 국악의 전화를 꾀했다. 하다 보니 대금은 너무 담을 것이 많은 그릇이었다. 대금의 원형은 살리고 감각은 더했다. 보수적인 국악계에서 국악을 망친다는 욕을 들어가며 국악의 대중화에 앞장섰다. 점차 사람들에게 잊히는 국악을 살리기 위한 그 나름의 묘책이었다. 아울러 오랫동안 선대로부터 배운 지식을 후학들이 쉽게 배우고 따라할 수 있도록 교본도 만들고

음반도 제작하는 등 민속악 정립에 분투했다. 노란색 PVC로 유아용 병아리 단소를 만들고 죽향 단소, 쉬운 단소 등을 널리 보급했다.

“악기를 만들다 보니까 공장장, 오디오 제작하니까 레코드 사장, 책 교본 만드니까 출판사 사장, 영상 만들다 보니 영화사 사장, 여기에 공연까지 기획했잖아요. 제가 완전히 엔터테인먼트 그룹 회장이 됐어요. 하하하!”

하얀 셔츠에 분홍 타이를 맨 그에게서 두 팔 걷어부친 청년 사업가의 열정이 묻어난다. 그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앞으로도 양악에 비해 항상 뒷전 신세였던 국악계의 위치 향상을 위해 숨이 붙어 있는 한까지 애쓰겠다는 각오를 다진다. 요즘도 전국 초등학교에 무료 강연을 나가는 등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 그뿐 아니다. 음악의 깊이에서도 그 한계를 넓혀 지난 2009년에는 세계 최초 120분 대금산조 음반 ‘笛流(적류)’를 내는 기염을 토했다.

강하게 살라, 이생강(生剛) 대금 사람도 숨을 잘 쉬어야 하듯이 대금을 불 때는 호흡법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 보

통 헛바람, 입김, 입바람으로 불게 되는데 이 가운데 헛바람은 외부호흡으로 소리가 거칠고 탁하게 나며, 호흡이 짧아 자주 호흡을 해야 하므로 오래 연주하기가 부담스럽다. 하지만 입김 즉 복식호흡으로 대금을 불게 되면 맑고 부드러운 음이 나며 호흡도 여유 있게 조절할 수 있어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다고 전한다.

“속도의 시대예요. 기계문명화 되어가는 세상에 정서적 혼란도 큼니다. 대금은 마구 달려가는 감정을 제어해 줘요. 대나무에서 퍼지는 소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게 목관악기입니다. 단소는 불기도 쉽고 조용하게 마음 고르기로 최고죠. 심폐 기능도 강화되고, 치매도 막고 감성이 풍부해져 창의력에도 좋습니다. 저는 60이 넘어서 더 좋은 발상이 많이 떠올랐어요. 우리 자랑스러운 민속악이 감동을 주는 음악이 되도록, 더 대중 속으로 들어가 보여주고 들려주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생강. 험난한 세상에 태어났으니 ‘강하게 살라’ 하여 ‘生剛’이었다. 이름에 담긴 사명대로 그의 대금가락은 민들레처럼 강한 생명력으로 널리 울려 퍼지리라. 🍀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게 목관악기입니다. 저는 60이 넘어서 더 좋은 발상이 많이 떠올랐어요. 우리 자랑스러운 민속악이 감동을 주는 음악이 되도록, 더 대중 속으로 들어가 보여주고 들려주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 다른 날 찾는 세계여행

“슬프고 속상하면 춤을 추어라. 생각이 많으면 춤을 잃어버리고 리듬을 놓쳐 버린다. 날듯이 추어라. 노래하듯 추어라. 허튼 생각을 멈추고 춤추듯 살아가라.” 이틀이 널리 알려진 한 무용수의 말이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하늘을 날고 싶어 했다. 그 욕망은 발끝을 들어 하늘을 향하는 동작을 낳았고 그것은 곧 춤이 되었다. 그러나 하늘을 향한 욕망보다 땅을 향한 욕망을 가진 이들이 있었다. 다른 아닌 집사들이다.

글·사진...최도성, 여행 칼럼니스트

낭만이 잉태한 안달루시아의 열정 속으로

Spain Andalusia

세비야 4월 축제(Feria de April)의 꽃, 민속춤 세비야-느(Sevillana)



과달키비리 강둑에 세워진 세비야를 지키는 망루, 황금의 탑. 탑의 상부가 황금색을 띠고 있어 '황금의 탑'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집시들의 한이 서린 안달루시아의 정열, 플라멩코

열정의 상징, 플라멩코와 투우 집시의 설움과 한을 담은 춤, 플라멩코를 보고자 하는 나의 소망은 결국 마드리드에서 고속철로 2시간 반 거리에 있는 스페인 남부 도시 세비아행 열차에 몸을 싣게 했다.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던 집시, 그 어느 곳에서도 그들은 환영받지 못했다. 멸시와 천대만이 그들의 몫이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너른 하늘보다 한 뼘의 땅이 무엇보다 간절했다.

한을 품은 한 여인이 일어나 힘겹게 땅을 밟으며 흐느낀다. 옆에 있던 남자는 나뭇가지를 들고 땅을 치며 흐느낀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플라멩코다. 이 춤은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이 본고장이다. 집시란 명칭은 아프리카와 이집트를 거쳐 스페인으로 넘어온 유랑민들을 영국인들이 이집트 사람(Egyptian에서 E 두음 손실)으로 오해해 부른 데서 기인한다. 안달루시아는 플라멩코뿐 아니라 피의 결투장, 투우의 고향이기도하다. 18세기 초 안달루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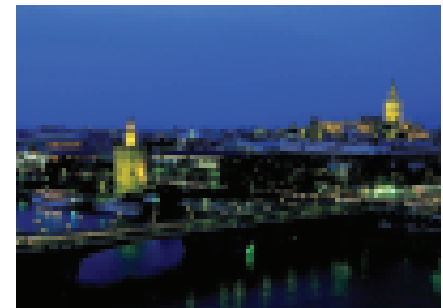
웅대한 협곡 사이에 세워진 투우의 도시, 론다의 절경

아의 산간 마을 론다(Ronda)에서 말을 탄 투우사가 펠리페 5세의 왕위 즉위식을 기념하기 위해 황소와 싸운 것이 투우의 기원이 되었다. 론다는 세비아에서 열차를 타고 남쪽으로 두 시간 반 거리에 있는 작은 도시다. 이곳엔 투우의 발생지답게 1785년 세계 최초로 지어진 투우장이 있어 주말마다 핏빛 치열한 투우 경기가 열린다. 또 이 도시는 헤밍웨이의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를 원작으로 한 영화 촬영지이다. 과다라마 산악을 대신한 계곡 사이에는 누에보 다리가 놓여 있다. 100미터도 넘는 천혜의 절벽 사이를 잇는 이 다리 위에 서면 론다의 아름다운 풍광을 한눈에 느낄 수 있어 이 도시를 방문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된다.

스페인다움을 가장 잘 나타내는 낱말은 '열정'이다. 이 뜨거운 정서를 요동치는 심장과 함께 만끽할 수 있는 지역은 스페인에서 단연 안달루시아다. 플라멩코나 투우 이외에도 이 지역은 스페인의 상징

인 이글거리는 태양이 열정의 온도를 더한다. 지중해 최고의 해안이라는 태양의 해안(Coasta del sol), '코스타 델 솔'이 있기 때문이다. 이 해안은 동쪽으로는 피카소의 고향 말라가를 시작으로 서쪽으로는 스페인과 맞닿은 영국령 지브롤터까지 300여 킬로미터에 이르는 해안을 일컫는다. 이러한 특성은 안달루시아 사람들의 기질을 낙천적으로 만들었고 다소 과장스러운 허풍과 뛰어난 유머 감각을 낳았다.

낙천적 기질이 낳은 안달루시아의 뜨거운 예술 그들의 이러한 기질은 타오르는 정열과 함께 화려하고 낭만적인 예술을 잉태했다. 여기에는 콜럼버스의 영향도 적지 않다. 그가 신대륙으로부터 가져온 금은보화는 이 지역의 풍요를 낳았고, 중세 스페인의 독창적인 예술의 바탕이 되었다. 물질적 풍요는 사람들로 하여금 시간을 낭아돌게 하였고 그것은 곧 방탕한 생활에 빠져들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를



휴화산같은 세비아의 야경



세비아 페리아 축제 속의 그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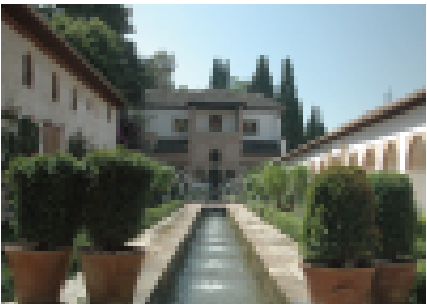
쫓아 유럽의 여러 예술가들은 이 지역으로 몰려들었고 안달루시아를 대상으로 예술을 만들었다. 이탈리아의 음악가인 로시니는 세비아에 머물며 〈세빌리아의 이발사〉를 작곡했고, 프랑스인 비제는 세비아 집시여인의 사랑을 그린 오페라 〈카르멘(Carmen)〉을 만들었다. 희대의 탭아 돈 후안의 고향이 세비아인 것도 우연은 아닌 듯싶다. 돈 후안의 타락상을 모차르트는 그의 오페라 〈돈 조반니〉에 담았다. 이런 것들이 하나둘 쌓여 안달루시아의 문화적 특성을 이루었고 스페인을 상징하는 열정의 근원이 되었다.

안달루시아의 문화적 특성은 세비아뿐 아니라 이웃 도시 코르도바와 그라나다에도 잘 나타나 있어 이곳 여행의 핵심을 이룬다. 지금은 세비아가 안달루시아의 주도이지만, 아프리카의 무슬림들이 지중해를 건너와 최초로 세운 도시는 세비아 북동쪽에 위치한 코르도바다. 이 도시는 한때 인구가 100만이



그라나다, 안달루시아의 보석 알람브라 궁전의 모습

넘는 유럽 제1의 도시였지만, 이슬람 세력이 몰려간 후 쇠락해 현재는 30만 정도의 인구를 가진 소도시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곳에 회교사원만 300개가 넘었다고 한다. 그때 지은 가장 큰 규모의 메스키타는 한꺼번에 2만 5000명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원으로 이슬람 종교의 꿈을 찾아 볼 수 있는 장소다. 그리고 그라나다. 콜럼버스가 탐험여행을 떠났던 해인 1492년 1월 3일, 이슬람 왕조가 마지막까지 버티다 도망친 장소가 바로 알람브라 궁전이 있는 그라나다다. 이 세 도시(세비아, 코르도바, 그라나다)는 공교롭게도 안달루시아 중앙으로부터 정상 각형을 이뤄 위치하며 이슬람 문명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도시들이다. 세비아에는 예술이, 그라나다에는 이슬람 왕조가 남긴 역사의 흔적이, 코르도바에는 이슬람 신앙의 영구한 꿈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까닭에 다음의 세 도시는 안달루시아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코스가 되었다.



알람브라 왕궁의 아라야네스 안뜰

열광의 도가니, 스페인은 축제의 나라! 스페인은 축제의 도시이기도 하다. 세비아의 봄 축제와 더불어 발렌시아의 토마토 축제, 팜플로나의 소몰이 축제는 스페인을 대표하는 3대 축제로 손꼽힌다. 또한 스페인은 연중 200여 종의 크고 작은 축제가 지역에 따라 열린다. 언뜻 보면 세상에서 놀고먹는 데 제일 일등인 나라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휴일조차, 빈둥거리는 날이 아니라 축제를 준비하고 즐기

기 위한 날이다. 스페인 속담에 '비비르 라 피에스타(Vivir la fiesta) - 축제 속에 산다'는 말이 있는데, 축제는 그들의 삶의 한 과정임을 나타내주는 말이다. 이렇듯 세비아는 매년 4월이 되면 모든 거리가 술렁이기 시작한다. 세마나 산타(Semana Santa) 행렬을 시작으로 봄 축제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페리아 데 아프릴(La Feria de Abril)이라 부르는 세비아 4월 축제는 부활절이 끝난 일주일 뒤부터 7일에 걸쳐 지속되는 스페인에서 가장 큰 규모의 축제다. 이때가 되면 거리는 카세타(Caseta)라는 형형색색의 임시 천막이 세워지고 여인들은 한껏 뽀낸 화려한 색상의 축제 옷을 꺼내 입는다. 가로등에 불이 켜지기 시작하는 저녁이 되면 카세타 안에는 '신의 음식'이라고 불리는 타파스(Tapas)가 넘쳐나고 빈 공간에선 요염한 자태의 여성들이 짝을 지어 플라멩코나 세비야나(Sevillana) 민속춤을 추며 분위기를 한껏 띄운다. 이때쯤이면 여행객들도 손에 들었던

이곳의 특산 와인 세리주 잔을 내려놓고, 현지인들의 손에 이끌려 너나 할 것 없이 흥분의 도가니에 휩쓸린다. 서툰 솜씨이지만 조심스레 그들의 스텝을 따르기 시작한다. 도시는 점점 낭만과 자유의 정점에 이르고 사람들은 붉은 빛 소용돌이에 빠져든다. 4월, 세비아의 밤은 이렇게 깊어 간다.

안달루시아 전통음식, 하몽과 가스파초 그리고 세리주

외국 나들이 중 그곳의 전통음식을 맛보는 것도 큰 즐거움이다. 단순히 음식 맛만 즐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음식에서 찾아보는 것도 좋을 듯싶다. 문화를 이해하는 데 음식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안달루시아의 전통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스페인의 특산물이며 식재료인 하몽(Jamon)을 들 수 있다. 스페인을 여행하다 보면, 우리나라 시골에서 메주를 걸어 놓듯 가정집이나 가게 천장에 메주처럼 매달린 돼지 뒷다리를 볼 수 있다. 꾸덕꾸덕 말린 이 하몽 중에서 최고의 품질이 생산되는 지역은 안달루시아의 산악지대인 하부고(Jabugo)란 지역이다. 이곳의 도토리나무 열매만 먹고 자란 흑돼지로 만든 하몽을 '하몽 이베리코'라고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것과는 품질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값으로 따져보더라도 거의 5~6배 차이가 나는데, 다리 하나에 그 값이 약 600유로 정도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00만원이 넘는 셈으로 상당히 비싼 식재료이다.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은 하몽 이베리코라는 말만 들어도 군침을 삼키곤 한다. 하몽은 얇게 썰어 메론 위에 얹어 먹기도 하고 각종 고급요리를 위한 식재료로도 쓰인다.

또한 안달루시아는 더운 남부지방인 관계로 더위의 갈증을 해소시켜줄 가스파초 스프가 유명하다. 아체스프인 가스파초는 토마토, 파프리카, 양파 등의 야채를 잘게 갈아 빵 조각과 함께 하몽을 얹어 차게 먹는 요리로 안달루시아가 그 고향이다. 이와 더불어 세리주도 안달루시아의 자랑거리 중 하나다. 세리주는 안달루시아의 온난한 기후를 이용해 재배하고, 이를 건조시킨 포도에 브랜디를 첨가하여 알코올 도수를 높인 안달루시아 전통 와인이다. 이 와인의 원산지는 세비아에서 교통편으로 한 시간 반



역동감 넘치는 형식미의 예술, 투우



부뇰(Bunyol)의 토마티나 축제



코스타 델 솔의 누드 해변

거리에 있는 헤레스 라 프론테라(Jerez de frontera)인데, 세리라는 명칭은 헤레스라는 마을 이름을 영국인들이 아랍어식으로 잘못 부른 데서 기인한다.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방문해 볼 만한 가치가 있



부활절 일주일 전 일요일에 시작되는 세마나 산타 행렬

는 마을로서 시내에는 와인 저장고인 보데가(Bodega)가 30여 개 정도 위치해 있다. 대형 보데가는 가이드가 동행하며 자세한 설명과 함께 세리주를 시음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가는 길 _ 마드리드에서 스페인 고속철인 AVE를 타고 코르도바까지 1시간 40분, 세비아까지는 2시간 30분 소요

날씨 _ 지리적으로 안달루시아 남단의 위도는 한국 인천에 해당되지만 기온은 반대다. 겨울에도 평균 기온이 섭씨 10도 이상이며 여름에는 40도가 넘는 날이 태반이다. 그러나 건조한 지중해성 기후이므로 그들은 꽤 서늘한 편이다.

여행 시기 _ 기후를 신경 쓴다면 봄철이나 가을철이 여행하기엔 가장 적기이며, 세비아 축제를 보기 위해서는 부활절(2010년을 기준으로 4월 4일, 춘분 뒤의 첫 만월 다음에 오는 일요일)이 끝난 일주일 후부터 일주일 정도 가량이 좋겠다. ☞



안양 호계동 호원초교로 가는 마을 골목길. 그의 작업실은 도심이 내려다보이는 건물 6층 옥탑에 있다. 조금 침침한 건물 외형과는 달리 10평 남짓한 작업실은 따뜻하고 밝다. 사방의 벽면에 걸려둔 그림들과 이쪽저쪽 공간마다 쌓아둔 선인장 그림들의 화려한 색깔이 더해진 탓이다. 베레모를 쓴 그의 얼굴에는 밝고 따뜻함이 그대로 배어 있다. 그림과 그 그림을 그린 이가 영락없이 닮은 모습이다.

“지금 정말 행복해요. 내 그림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림을 그리는 이 공간이 있다는 거, 요즘처럼 행복하게 작업을 할 때도 없었어요.”

지금 행복하다는 건 몇 가지 해석이 필요하다. 얼마 전까지는 행복하지 않았거나 덜 행복했다는 것, 행복을 찾아서 오랜 세월 자신과 싸우며 그림을 그려왔다는 것, 힘든 생활이 계속되다가 드디어 빛을 보았다는 것, 대중 그런 해석이 덧붙여진다. 그는 어느 쪽일까. MBC월화드라마 <파스타>에 나온 대화의 한 장면을 인용해 본다. 선인장과 관련 있는 대화다.

“이게 뭐냐. 못생긴 게 가시만 잔뜩 돌아가지고……. 근데 꽃도 핀다! 선인장은 처음 꽃을 피우는 데 몇 년은 걸린데, 그것도 진짜 말라죽을 것 같은 위



기의식을 느낄 때 마지막 안간힘으로 피워내는 게 바로 그 꽃이지. 그렇게 자기 존재감도 알리고 끝까지 살아남는 거지. 이래도 매력 없어?”

깎아지른 절벽 위의 의자, 그녀만의 그림 세계를 열다

드라마 <파스타>에서 이 대화 장면이 나오는 동안, 그가 그린 여러 개의 선인장 그림이 몇 분 동안 방송에 나왔다. 그가 선인장을 그리기 시작한 것은 팔 년 전이다. 그는 화초를 잘 가꾸지 못한다. 두 자녀의 엄마, 한 남자의 아내,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 그 빈틈없는 생활 속에서도 그림을 그려야 하는 욕망은 햇빛과 물을 시시각각 공급해야 하는 작가에게는 사치일 수 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심코 창가에서 자라는 선인장을 보게 되었다. 가만히 보니 가시도 생장점도 규칙이 있었다. 무질서 속에 질서가 거기 있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규칙적인 모양에 치중한 그림을 주로 그렸다. 처음에는 꽃도 그리지 않았고, 봉오리들만 그렸다. 그러던 지난해 그 가시들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꽃이 피어남을 보았다. 그 이전에도 여타 다른 꽃을 보았지만 그때의 감동과는 비견될 수 없는 또 다른 울림이 다가왔다.

가시, 그 아름다운 몸짓 선인장 화가 조은신

글...김현주 사진...cheese studio

두터운 외피를 뚫고 나온 날카로운 가시들은 생장의 뜨거운 한 몸짓, 몸짓이다. 물을 가득 머금은 내피의 뿌리는 건조하고 척박한 땅에 대한 은혜여서 오색찬란한 꽃을 피우는지도 모른다. 외피만 보면 희망도 꿈도 없다. 그러나 물감을 수십 차례 덧어씌울 때마다 그 안을 들여다볼 줄 아는 이에게는 소우주가 속살을 드러내며 말을 걸어오는 법이다. 선인장 화가 조은신, 그는 인고의 세월 속에서 가시덤불을 헤치고 당당히 피어나는 선인장의 꽃처럼, 그 외피의 가시가 내면에서 비로되었음을 그림으로 말하고 싶단다.



화가 조은신 _ 성신여자대학교 예술대학 서양학과 졸업, 동 대학원 판화와 석사 졸업 / 개인전 4회 / 2010년 서울 오픈아트페어, 갤러리모이4인기획전, LA Global Hybrid / 2009년 경기현대 베이징전, 대한민국중심작가전, BIAF 부산국제아트페어특별전, 수원시 승격 호계미술관개관기념초대전, 갤러리부림개관전 / 2008년 경기현대미술 방향전, 꽃 시대를 가르다전, 의왕 국제를레키아트, 모락산성전시, 08국제퍼즐프로젝트, 한·일·필리핀화인아트페스티벌, 인사동사람들전, SKapap시존2전, AVEK우수작가초대전, 대한민국중심작가전, 대림대학교갤러리개관전, NAAF부산국제아트페어 / 2007년 아시아의 바람전, 독도사랑전, 기타 단체전 및 기획초대전 100여 회 및 국제전 8회 등



〈a cactus-beautiful time〉 116 x 91cm, acrylic on canvas, 2010



〈a cactus-대통령〉 73 x 50cm, acrylic on canvas, 2010



〈a cactus-beautiful time〉 116 x 91cm, acrylic on canvas, 2010

“그 꽃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가시투성이의 몸집에서 놀라운 힘을 찾았죠. 사람이나 식물이나 우주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님을 일깨워주는 메시지를 받았죠. 감동이었어요. 어느 한 순간 깨달음이 다가온다고 하잖아요. 선인장은 그렇게 말없이 내 자신의 모습으로 다가왔어요.”

그가 내세우는 메인의 그림은 이렇게 탄생했다. 캔버스를 아껴 볼 요량으로 조각을 전공하던 딸이 쓰던 헌 캔버스를 재활용해 그림을 한번 그려보았다. 그런데 그게 바로 오늘의 조은신을 만든 선인장 그림이었다. 밝은 핑크색 바탕에 여러 모양의 선인장을 그리고 변화를 추구하는 카멜레온에 작가 자신의 모습을 투영시켜 선인장 숲을 향해 다가가는 그림, 바로 이 작품이 드라마 〈파스타〉에 나온 후 더욱 주목받는 그만의 메인이 되었다.

이전에 그는 각기 다른 세 가지 형태의 그림을 그려왔다. 대학 시절에는 화산을, 대학원 때에는 별자리를, 졸업 후에는 바위를 주로 그렸다. 선인장을 그리기 전, 그



〈a cactus-beautiful time〉 40cm, mixed media, 2009

지난해 그 가시들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꽃이 피어남을 보았다. 그 이전에도 여타 다른 꽃을 보았지만 그때의 감동과는 비견될 수 없는 또 다른 울림이 다가왔다.

림교습소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물감과 재료를 사야 했던 그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림을 당시에 그린 적이 있다. 깎아지른 절벽 끝에 빈 의자 하나, 저 멀리 낭떠러지에는 아련한 가로등 길이 무한히 점점으로 사라져가는 옅은 회색 바탕의 그림이었다. 절벽은 시꺼멓고, 그 시꺼먼 직각의 절벽 끝에 빈 의자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인 그림이었다. 현실과 이상 속에서 고민하는 자신의 모습을 담은 그림, 그 그림은 자신도 모르게 걸리지지도, 포장되지도 않은 채 그를 솔직하게 세상에 드러내보였다.

“그 작품은 내 인생의 한 획을, 전환점을 알려준 통렬한 메시지였어요. 선인장을 그리기 바로 직전의 내 모습을 담은 그림이었죠. 아련하고 아득한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 주었어요. 화가로서의 본업에 충실하기보단 학생들을 가르치고 가정을 돌보는 그 세월을 표현한 자전적 서사의 그림이죠. 아니 지난 기억의 세월이 한테 뭉친 그림이었죠. 그 이후부터 밝고 화려한 선인장 그림을 그리게 되었어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선인장을 발견한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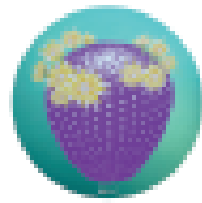
핑크빛 그림을 닮지 않은 그녀의 잿빛 인생사

그의 삶은 절벽의 그림이 보여주듯 결코 순탄치 않았다. 전남 화순의 시골마을이 고향인 그는 그곳에서 목사였던 부친을 3살 때 잃고 홀어머니와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짐작한다. 만석부자가 아닌 이상, 홀어머니와 사는 세 자녀, 또 입에 풀칠하기 바쁜 삶 속에서 홀어머니가 그에게 그림의 재료나 물감을 사줬을 리 만무할 거라고. 초등학교 시절 미술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그림이 인도 순회 전시를 나가도, 광주에서 중학교를 다닐 무렵 조선미술대회에 나가 대상을 받아도, 고교 시절 혼자 기차를 타고 야외 스케치를 다녀도, 홀어머니는 미술학원비는커녕 미술대학 진학을 반가워했을 리 없었다. 그의 출중한 그림 실력을 알아준 광주 로명화실의 고 김대성 원장의 배려로 미술학원을 기웃거린 게 전부라던 전부였다.

“미술대학에 합격해놓고 입학금이 없어 과일을 한 박



〈a cactus-beautiful time〉 40cm, mixed media, 2009



〈a cactus-beautiful time〉 1m, mixed media, 2009

스 산 후 가게마다 돌아다니며 팔았어요. 입학금 중 절반쯤 벌었나? 그때부터 나의 아르바이트는 그림과 함께 8년 전까지 계속되었죠. 아이를 낳고 남편을 모시고 며느리 역할까지 하며 틈틈이 작업실로 달려와 새벽녘까지 그림을 그렸어요. 새벽 1시 혹은 2시나 되어야 집으로 돌아갔죠. 어떤 날에는 새벽 4시까지. 출근하는 남편 밥도 해줘야 했고, 아이들도 학교에 보내야 했고, 집안 청소도 해야 했고, 학생들 그림도 가르쳐야 했죠. 다들 하는 일인데 너무 생색내는 거 아닌가요? 호호호…….”

그는 이렇게 말하며 호탕하게 웃는다. 네 사람이 해야 할 몫을 혼자 하면서도, 그 과정이 결코 ‘호호호’ 하고 웃을 일이 아닌데도, 그는 씩씩하고 건강하고 밝게 웃었다.

밝고 찬란하게, 따스한 행복을 느끼며 그림을 그릴 터…

노력한 만큼 결과가 온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과정을 중시한다. 그도 마차가지다. 기회는 금방 오지 않아



〈a cactus-beautiful time〉 80 x 73cm, acrylic on canvas, 2009



〈a cactus-spin〉 80 x 73cm, acrylic on canvas, 2010



〈선인장 이야기 4호 변형〉 mixed media, 2006

가시투성이의 몸집에서 놀라운 힘을 찾았죠. 사람이나 식물이나 우주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님을 일깨워주는 메시지를 받았죠. 선인장은 그렇게 말없이 내 자신의 모습으로 다가왔어요.”

도 언젠가 오리라 믿는, 준비된 이들만이 느끼는 기분 좋은 판타지가 그에게도 있었다. 말라죽을 것 같은 위기의 식을 느낄 때 안간힘으로 꽃을 피우는 선인장처럼 인고의 끝에 오는 대답이다. 어느 평론가는 그의 그림을 ‘공기원근법’이라고 정의했다. 공기 중에 훨훨 날아다니는 선인장, 신비하고 영혼을 울리는 그림이 아니던가. 그 빈 공간 위에 하나하나 생장점을 찍는 예쁘게 다가오는 가시(a spine), 가시(佳時, 아름다운 시간, beautiful time), 가시(可視, 눈으로 보는 것)의 세계. 지나 온 그림의 세계가, 그리고 그 세계를 그린 그의 삶이 순탄치 않았듯, 그가 선인장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는 목소리는 쟁쟁하게 치열하면서도 찬란하다.

“어느 날 친구에게 우울하다고 했더니 그 친구 왈, ‘너도 우울할 때가 있니?’ 하더군요. 웃음 속에 우울한 눈물이 있다는 걸 몰랐나 봐요. 제가 그린 선인장처럼 말이에요. 호호호…….”

선인장을 너무나도 닮은 그녀, 조은신의 웃음이다. ☺





씨 종지떡

300년을 이어온 일 바라지 음식 ‘뭇밥’ 과 ‘씨 종지떡’

강릉 서지 마을 창녕 조씨 종가

“씨 종지떡을 아세요? 모심기 철에 먹었던 저희 마을에서 대대로 전해오는 일 바라지 떡입니다. 모판에 쓰고 남은 종자 볶씨를 뿔아 호박고지, 대추, 콩, 팥, 감 껍질 등과 햇쑥을 섞어 떡을 찐니다. 마지막 남은 볶씨로 버무린 떡이라 해서 ‘씨 종지떡’이라고 합니다.” 강원도 강릉시에 주소를 둔 은둔처사 조 명숙(曹命肅, 1712~1772) 공종가의 내림 음식은 이름도 특이한 ‘씨 종지떡’이었다. 이 떡을 찾아가는 길은 요리 이름만큼 예사롭지 않았다.

글...이연자 전통문화 연구가 사진...김치윤

강릉시를 대표하는 고택 선교장을 끼고 500m 더 가면 난곡교가 보인다. 다리를 건너지 말고 오른쪽으로 자동차 한 대가 겨우 다닐 수 있는 산길을 굽이돌다 보면 오른쪽에 ‘서지 초가뜰’이란 작은 세움 간판이 있다. 그 길을 따라 산 아래 대나무, 소나무 푸르게 성성한 곳에 종가는 나직이 앉아 있었다.

진사집으로 불리는 종가는 과거를 급제한 인물이 났음을 상징하는 용머리 솟대걸이가 대문을 대신했다. 앞으로는 논밭이 펼쳐지고 사랑채와 안채는 추운 지방 가옥의 특징인 ‘ㅁ’자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지금도 장작으로 군불을 때고 숯불화로를 난방용으로 쓰는 등 전통적인 겨울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이곳엔 부엌에 이어 광과 마구간도 그대로 보존돼 있었다.

조상의 공간인 사당의 외쪽 세살문이 소박한 종갓집의 조출함을 더해 주었다. 노종부가 거처하는 안채 장롱 문짝에는 시집을 때 친정아버지가 적어 주신 ‘9가지 여인의 도리’가 빼곡히 적혀 있어 눈길을 끌었다.

뭇밥상의 최고 하이라이트, 씨 종지떡

종가에는 9대 종손 조옥현(65) 씨의 부인 최영간(62) 씨가 ‘서지 초가뜰’이란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웬만한 설명으로 쉽게 찾을 수 없는 이런 곳에 음식점이 있다니 신기할 따름이다. 하지만



강릉 서지 마을 창녕 조씨 종가 전경

시어머니 김쌍기(88) 할머니의 지시로 만들어내는 이 떡 음식은 매우 특별했다. 모내기철에 먹었던 일 바라지 음식으로 맛에 기교를 부리지 않고 무공해 재료를 사용해 무엇보다 맛이 소박하고 담백했다. 사라져가는 민속음식을 보존하는 의미도 있어 보였다.

“강릉시에서 저희 집안에 전해오는 음식을 외부 사람들이 맛볼 수 있도록 해주면 농막을 개축해 주겠다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집을 넓힐 수 있겠다는 욕심에 승낙을 했지만 돈을 받고 음식을 차려주는 일이어서 조상님들께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가풍은



서지오약쌈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 배풀기를 최고의 선행으로 여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택한 메뉴가 ‘못밥’이었다. 모를 심는 일꾼들을 배불리 먹도록 해야 풍년이 온다는 선대 어른들의 지론에 의해서였다.



8대 종부 김쌍기 할머니와 9대 종부 최영간 씨가 김쌍기 할머니가 시집을 때 가져온 장롱 문짝 앞에 앉았다. 그 뒤로 친정아버지가 써준 여자의 덕목 아홉 가지가 건너 보인다.

쌀밥 구경이 어려운 시대였지만 이때만은 성주단지를 탈탈 털어 서라도 쌀밥을 지었다. 밥 위에는 통팔을 삶아 뿌려 맛을 더했다. 미역국도 반드시 곁들였다. 모를 심으려면 허리를 굽혀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하는데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저녁때만 되면 얼굴이 붉어지면서 다음날에는 얼굴이 심히 부어오르기 때문이다. 이럴 때엔 혈액순환을 돕는 미역국이 제격이라는 것. 흰밥에 섞었던 팔은 이노 작용을 도와주는 효능 때문이라는 종부의 설명에서 선조들의 예지를 엿볼 수 있었다. 못밥을 담은 이동식 그릇도 지혜로웠다. 밥과 국은 깨어지지 않는 투가리(목기)에 담았고 콩치와 두부조림 등의 물기 적은 음식은 떡갈나무 잎사귀에 싸서 한 사람씩 나눠줬다. 스테인리스나 플라스틱 일색인 요즘의 단체 식기보다 운치 있는 웰빙 식판이다.

“못밥을 질밥이라고도 합니다. 서로 돕는 걸 ‘두레’ 또는 ‘질’이라고 하지요. 일꾼 중 우두머리는 ‘선군’이라 불렀고 다음 서열은 ‘상일꾼’ 그 다음은 ‘질꾼’으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살찌우는 영양덩어리 서지오약쌈과 맛깔 나는 포식혜

시어른이 계실 때 사랑채 손님상에 올랐던 ‘서지오약쌈’은 한의서를 많이 읽었던 이 맥 조상들이 개발한 음식이다.

간에 좋다는 빨간색의 대추, 신장을 이롭게 한다는 푸른 부추, 폐와 자궁에 좋다는 검정 능이버섯, 해독제로 쓰였다는 흰색 더덕을 곰취나물에 싸서 잣소금으로 간을 해 먹는다. 이 쌈은 영양가 계산이 무딘 사람이 봐도 몸에 이로운 음식임을 쉽게 눈치 챌 수 있다. 계절에 따라 재료에 변화를 줄 수 있어 활용도 만점인 사계절 음식이라고 한다.

또 다른 특미는 포식혜다. ‘가자미식혜’, ‘안동식혜’와 같이 각 지방마다 특색을 갖춘 여러 식혜를 맛봤지만, 이 맥의 포식혜는 새콤달콤한 맛과 함께 무엇보다 부드럽고 비린 맛이 전혀 없어 혀 끝에 긴 여운이 남았다. 생엿기름이 들어가서인지 소화도 잘됐다. 명태포를 불려서 다지듯 잘게 썰고 무도 잘게 나박썰기를 한다. 찹쌀 고두밥을 찌고 엿기름도 곱게 갈아 고춧가루를 섞고 천일염으로 간을 해 함께 버무린다. 오지항아리에 담아 그늘에 10일 정도 썩 삭히면 쉽사리 먹을 수 있는 따라하기 쉬운 요리법이었다.

오랜 전통과 정성의 송죽두견주, 달콤달콤 진달래차

제삿날이 다가오면 종부는 제주로 올릴 송죽두견주(松竹杜鵑酒)를 준비한다.

이 술은 종가의 가양주로 일반 청주를 만드는 기본과 같다. 찹쌀과 멍쌀을 섞어 고두밥을 찌서 식힌다. 식힌 고두밥과 누룩을 잘 비벼 섞은 후, 봄에 따서 꿀에 재워둔 진달래꽃과 깨꽃이 씻은 솔잎을 넣어 혼합한다. 달콤 고소하게 온갖 재료가 섞인 그릇에 끓인 물을 식혀 부어 술밥을 만든 다음 항아리에 넣고 봉한다. 그 리고는 25도의 실온에서 10일간 발효시키고 다시 18도 정도의 온도에서 10일 정도 숙성시켜 술독에 용수를 박아 맑은 술을 뜬다. 두견주는 옛 의서에도 기록될 만큼 약성이 뛰어난 건강주로 시할 아버지께서 살아 계실 적에 반주가 되기도 했다.

봄이면 넓은 서지 뜰에 갖가지 꽃이 핀다. 특히 봄을 알리는 진달래는 서지 앞뜰과 뒤뜰을 온통 붉은 꽃빛으로 물들인다. 이때 꽃을 따서 맑은 물에 행구면 수술은 절로 떨어지고 꽃잎만 남게 되는데, 그 꽃잎의 물기를 거두고 꿀에 재워두면 두견주와 두견차를 만들 수 있다. 두견차는 꽃잎과 시럽을 찌잔에 담고 뜨거운 물을 부으면 만들어지는 달콤한 향미의 차다. ☺



종가의 한 칸짜리 소박한 사당

Tip. 종가 요리 맛보기

서지오약쌈 (4인분)

재료 _ 대추 10알, 부추 100g, 황태 1마리, 더덕 세 뿌리, 능이버섯 100g, 곰취 20장, 잣소금과 잣 각각 50g, 참기름 1과1/2 티스푼, 소금 약간, 깨소금 약간

만들기

- ① 황태는 김이 오르는 찜 솥에서 살짝 찐다. 그래야 겹질이 잘 벗겨진다. 뼈를 추려내고 살만 가려내 면 보자기에 썬다. 다듬이 돌에 올려놓고 방망이로 부드럽게 두드린다. 보푸라기보다는 살이 씹힐 정도라야 한다. 여기에 맛과 색이 곱도록 참기름을 넣는다. 깨소금도 넣어 조물조물 무친다.
- ② 대추는 포를 떼서 씨를 발라내고 곱게 채를 썬다.
- ③ 더덕은 겹질을 벗긴 다음 행귀서 3cm 길이로 곱게 채를 썬다.
- ④ 능이버섯은 깨꽃이 씻은 다음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 굵은 채를 썰어서 참기름과 소금으로 간을 해 살짝 볶는다.
- ⑤ 부추는 씻은 후 3cm 길이로 썬다.
- ⑥ 곰취는 끓는 물에 데쳐서 식혀 둔다.
- ⑦ 한지 두 겹에 잣을 넣어 도마 위에 놓고 칼자루로 두드린다. 이렇게 해야 잣기름이 한지에 배어 포슬포슬해진 잣을 얻을 수 있다. 잣에 참기름을 넣고 소금을 약간 넣어 반죽한다.
- ⑧ 곰취를 펴서 갖가지 재료를 넣어 싸 먹는다.

씨 중지떡

재료 _ 멍쌀 1kg, 찹쌀 300g, 밤 10알, 대추 15알, 삶은 팥 2컵, 썩 300g, 꽃감 5개, 호박오가리(호박 말려놓은 것) 300g, 불린 강낭콩 한 컵, 소금 조금

만들기

- ① 멍쌀과 찹쌀을 한데 불려 방앗간에서 빻아 온다.
- ② 썩은 씻어서 물기를 뺀다.
- ③ 밤은 겹질을 벗기고 4등분 한다. 대추도 씨를 빼고 4등분 하고 꽃감과 호박은 사방 1cm 정도로 썬다.
- ④ 큰 함지에 재료 모두를 넣고 버무린 다음, 김이 오르는 찜통에 배보자기를 깔고 20분 정도 찐다.



보다 먼저! 보다 우월하게! 신약과 함께 삼천당의 미래로~

중앙연구소 신약연구팀

글...전채련 사진...Cheese Studio

젊은 연구원들이 그리는 개량신약의 핑크빛 Tomorrow~

파릇파릇 연둣빛 꽃내가 풀풀 피어나는 자유분방한 옷차림,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열기. 3명의 주임연구원 이하 5명의 일반 연구원들로 구성된 단출하지만 탄탄한 총 8명 인원의 신약연구팀은, 모두 비슷한 또래의 젊은 혈기로 구성된 삼천당제약의 핑크빛 新미래다. 사실 신약연구팀이 신설된 지는 채 얼마 되지 않았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제품연구팀과 신약연구팀이 함께 연구소의 개념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었는데, 개량신약에 대한 밀도 있는 연구를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확장시키고자 혁신적인 개혁과 함께 팀을 세분화하게 되었다. 이는 개량신약이 삼천당제약의 매출 원동력이며, 신약연구팀은 삼천당제약의 근간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약연구팀이 갖는 프라이드와 책임감은 남다르다. 특히 8명의 연구원 중 대다수는 신약연구팀이 개별 부서로 분리되기 전부터 개량신약의 진작을 위해 오랜 기간 애써온 경력자들이고, 각 1년차를 넘긴 신입사원들은 뚜렷한 연구성과를 통해 무한한 가능성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창의적인 브레인들이다.

이들 연구팀 업무의 중심인 개량신약은 이미 연구개발된 신약의 효과를 $\pm$ 로 증진시키는 과정이다. 즉, 다각도의 실험 및 연구를 통해 약의 오·남용 및 부작용을 줄이며 하나의 약이 가진 효능을 2가지 이상으로 배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로 개량신약 개발은 치열한 제약업계 시장에서 가장 먼저 비교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한다.

Power Up, 이중타정기! 당뇨복합제 Coming Soon~

또한 삼천당제약은 개량신약에 대한 기대와 함께 신약연구팀의 연구를 북돋고자, '이중타정기'라는 고가의 고급설비를 도입했다. 이 설비는 고차원적인 성능을 가진 타정기의 하나로, 혼합하게 되면 interaction 반응을 일으켜 문체가 될 수 있는 2가지 약물을 이중타정기를 이용해 하나의 제형으로 제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중타정기를 이용하면 약물의 방출 속도 즉 체내 흡수시간을 동시에 단축 및 지연시킬 수 있어 1일 2~3회에 걸쳐 복용하던 약

살금살금

엇그제 내린 눈이 채 녹지 않고 잔디와
영겨 더디게 오는 봄에
대한 갈망을 방망이질 친다.
그렇게 살금살금 이렇게 조심조심
봄은 발걸음을 떼길 망설이며
먼 길을 돌아오고 있다. 바로 이 때,
해사한 미소를 사방에 날리며 봄에
대한 간절함으로 우리를 손짓하는
이들, 삼천당제약 신약연구팀을
마주했다. 봄내음이 물릴 것만 같은
각종약품 냄새가 진동하는
연구실에서도 봄꽃을 닮은 그들의
환한 미소는 개량 신약에 대한
염원으로 반짝거렸다.



시계방향으로 (위) 박희용 연구원, 김정필 주임 연구원, 박현영 연구원, 박상준 연구원 (아래) 이진성 연구원, 이성우 연구원, 구형모 주임 연구원, 서동환 주임 연구원



을, 하루에 한 번만 복용해도 같은 효능 및 효과를 발휘하도록 만든다. 이를 통해 복용의 편리성을 증대시키고, 약값의 부담을 줄이며, 약물에 따른 부작용을 큰 폭으로 반감시킨다. 따라서 기존에 신약으로 개발된 하나의 약물을 보다 폭넓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약연구팀의 최고 가치이자,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 예상했던 대로 “첫째는 제품 개발, 둘째는 제품 성공이다.”라고 답했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역시나 개량신약의 성공이라 할 수 있겠다. 현재, 전 연구원이 총력을 기울여 1년 전부터 조심스레 진행 중인 개량신약이 있다. 이는 당뇨복합제로서 1년 후면 곧 시판될 수 있으리라 연구원들은 밝게 예상했다. 보통의 개량신약이 연구를 시작해 개발 및 시판되기까지 평균 2~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볼 때 이들의 당뇨복합제는 괄목할 만한 성과라 여겨질 만하다. 삼천당제약의 당뇨복합제는 두 가지 약의 기능을 하나로 집약시켜 ‘복용 편리성’의 이점을 극대화해 소비자의 편의와 비용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자 하는 것이다.

개량신약이 소비자의 손에 들어오기까지는 꼼꼼한 연구결과 분석을 시작으로 식약청의 허가를 얻기까지 장기간에 걸친 철저한 검사와 단계별 절차를 필요로 한다. 그야말로 신약은 국민의 건강을 보다 증진시킬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개량신약의 개발은 확실한 계획과 체계적

인 준비 기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먼저 1차적으로 대조군의 실험을 바탕으로 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대략 5,000만 원의 비용 소요)을 거쳐야 하고, 2차 단계에서는 보다 정확한 안전성을 측정하기 위해 보통 억대의 비용이 필요한 임상시험을 거쳐야만 한다. 물론 개량신약의 종류에 따라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만을 필요로 하는 약품, 이 2가지의 실험과정 모두가 필요한 약품 등으로 나뉠 수 있다. 그러나 수치화 및 통계화 된 보다 안전한 연구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대개 임상시험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개량신약의 성공은 60~70%의 확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하나의 완벽한 결과물을 얻기 위해 철야를 일삼으며 오늘을 매일같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다. 특히 도중 하나의 실험이라도 실패할 경우, 그간 소요된 억대의 비용과 고생한 나날들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매 실험과 연구에 임하는 그 순간만큼은 언제나 긴장의 연속이다.

특히 개량신약의 결과물이 소비자의 눈앞에서 찬란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타사 제품보다 먼저, 타사 제품보다 우월한 개량신약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연구원들의 어깨는 언제나 커다란 책임감의 무게로 무겁다. 행복의 정점에 달하는 순간이 “임상시험이 성공하는 바로 그때!”라고 말하며 굳은 의지를 표하는 삼천당제약 신약연구팀! 8명 젊은 연구원들의 눈망울에서 봄햇살처럼 반짝이는 개량신약의 성공을 엿볼 수 있었다. ☺

신약연구팀이
꿈꾸는
봄날의
상금발랄 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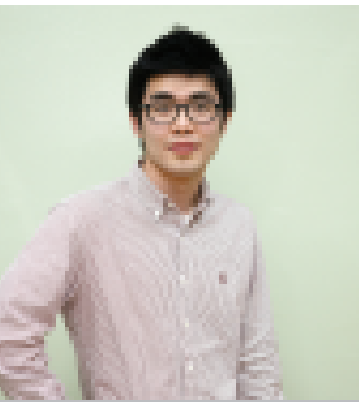
구형모 주임 연구원
“여자친구랑 놀러가고 싶은 한데……, 아직 확실한 계획은 없지만, 네 여자친구랑 같이 바닷가, 특히 남해로 파도 소리 들으러 가고 싶네요. 봄의 낭만을 느낄 수 있겠죠?”



서동환 주임 연구원
“봄에 아기가 태어나기로 예정되어 있어서 저도 제주도에 가고 싶은 한데, 아무 데도 못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년쯤에 아기가 돌 정도 지나면, 아내랑 아기랑 그 때 제주도에 갈래요!”



김정필 주임 연구원
“결혼 전엔가, 아내랑 함께 남이섬에 간 적이 있어요. 그때 너무 좋았던 기억이 많아서 이번엔 새로 태어난 아이와 함께 다시 한 번 남이섬으로 피크닉 가고 싶네요~”



박현영 연구원
“오랫동안 가족들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따스한 봄날이 오면, 가족들이 있는 부산에 놀러가 부모님과 함께 야구경기 보러 사직구장에 가고 싶네요. 롯데 자이언츠 팬이거든요.”



박상준 연구원
“아내 대신 제가 솜씨를 발휘해 맛있는 도시락을 싸두고 아이들아랑 같이 근처 공원이나 멀지 않은 가까운 곳으로 피크닉 가고 싶네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이성우 연구원
“저는 조금 조용한 곳에서 쉬었다 오고 싶어요. 한적한 바닷가에 여자친구랑 둘이서만 가서 바닷가의 정취도 즐기고 고요한 속에 몸을 맡기고 싶네요. 관찰하겠죠?”



이진성 연구원
“친구들아랑 제주도에 가고 싶어요! 아니 갈 거예요! 겨울에 한번 간 적 있는데, 봄에는 아직 한번도 가보질 못했거든요. 유채꽃 핀 너른 들판을 하이킹하며 일주하고 싶어요! 봄바람 상금하겠죠?”



박화운 연구원
“저는요, 남자친구랑 꼭 외도에 가고 싶어요. 전에 사진으로 본 적 있는데, 너무 예뻐서……. 꽃도 많이 피었을 테니까 사진도 많이 찍고 예쁜 추억도 많이 만들고 싶어요!”

똑똑히 알고 적기에 맞아야 하는 성인 예방접종

글...염중식...강동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흔히 예방접종이라 하면 주로 신생아와 영아 그리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얼마 전까지 예방접종의 주요 대상은 성인이 아니었으나, 최근에는 성인들을 위한 예방접종도 활성화되기 시작해 사전에 질병을 예방하고, 양질의 삶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 여러 모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예방접종(백신)은 가장 적극적인 질병 치료의 형태이며 가장 비용 대비 효과적인 질병 예방법이다. 특히, 노년 인구가 증가하면서 성인질환과 만성질환의 급격한 증가, 장기 이식이나 종양질환에 대한 치료법의 발달 등을 통해 면역저하자가 많아짐에 따라 예방접종이 필요한 대상도 현저히 늘어나고 있다. 또한 작년부터 발생한 신종 인플루엔자와 같은 신종 전염병의 유행은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주었고, 성인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를 만들었다.

성인을 위한 가장 기본 백신,

A형간염 백신과 파상풍-디프테리아(Td) 백신

성인에게 필요한 백신은 나이, 개인이 가진 질환, 임신 등의 특별한 경우, 전염병 유행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각각 달라질 수 있다.

먼저 올해 가장 권고되는 예방접종은 'A형간염 백신'이다.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성인의 수는 꾸준히 늘고 있으며, 성인이 A형간염에 감염된 경우 임상 경과가 나빠서 간 이식이 필요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올해는 유행의 정도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A형간염은 감염 후에는 완치제가 없기 때문에 백신으로 예방하는 것이 유일한 치료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20대 전에 백신을 맞는 것이 좋은데, 올해처럼 유행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10~30대는 반드시 백신을 맞는 것이 필요하며, 6~12 개월의 간격을 두고 두 번을 접종해야 효력을 볼 수 있다.

성인에게 필요한 또 다른 기본 예방접종으로는 파상풍-디프테리아(Td) 백신이 있다. 이는 10년에 한 번씩 접종 받는 것을 필요로 하며, 이 중 한 번은 백일해가 포함된 백신(Tdap)을 접종해야 한다. 또한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알려진 인유두종바이러스(HPV)에 대한 백신도 최근 개발 및 보급된 바 있다. 다음의 백신은 9~26세 여성들에게 권장되고 있으며 6개월 동안 3회에 걸쳐 접종이 이뤄진다. 더욱이 최근에는 27~45세의 여성이라면 누구나 성 경험에 관계없



이 접종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이밖에 50세 이상이라면 해마다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65세 이상은 폐렴백신을 맞아두는 것이 좋다.

항체검사와 함께 이뤄지는 백신 그리고

특이 질환자를 위한 다양한 백신들

앞서 언급한 기본 예방접종 이외에도 50세 미만 연령자를 대상으로 항체검사가 필요한 따라잡기 예방접종이 몇 가지 있다. 먼저 B형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양성이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B형간염 바이러스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 6개월 간 3회의 예방접종을 시행할 것을 권한다. B형간염은 간경화,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질환이므로 반드시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또한 40세 미만에서 수두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면 항체검사를 통해 면역 여부를 확인한 뒤 음성으로 판명시, 2회에 걸쳐 접종을 받아야 한다. 폐렴이나 뇌염과 같은 수두 합병증은 어린이보다 성인에게 더 빈번하고 그 증상 또한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홍역, 볼거리, 풍진 백신의 경우도 면역이 분명치 않은 경우 1회의 백신 접종이 권장된다. 수두와 홍역, 볼거리, 풍진 백신은

염중식 교수 ●1993 고려대 의대 졸업 ●2003 고려대 의과대학 대학원 석사 ●2006년 고려대 의과대학 대학원 박사 ●2008~2009 Visiting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Material Engineering and Science, Whiting School of Engineering, Johns Hopkins University/Postdoctoral research fellow, Infection Control Unit, Division of Infectious Disease, SOMDOM, JHMI ●한림대 의과대학 감염내과 분과주임교수, 대한감염학회 보형이사, 대한화학요법학회 보형이사, 대한내과학회 수련위원회 위원, 대한의사협회 신종전염병대책위원회 간사, 보건복지부 의료전문평가위원회 위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문위원, 질병관리본부 국가에이즈사업모니터단 상담사업부문 팀장, 사단법인 가톨릭 레드리본 이사



접종 후 4주간의 피임이 필요한데, 특히 가임기 여성은
 풍진 항체검사 후, 음성인 경우 1회 백신을 접종하며 4주
 동안 피임을 해야만 한다. 또 임신부의 경우에는 비활성
 인플루엔자 백신의 1회 접종이 권장되며, 수두 항체검
 사를 통해 음성으로 판명된 경우 분만 후에 백신 접종
 을 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심장, 폐, 콩팥 등에 만성질환을 갖고 있
 거나 악성 종양이나 장기 이식 등으로 면역이 떨어진
 성인의 경우에는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해야 하고, 올
 해 대유행이 일어난 신종 인플루엔자는 향후 수년에 걸
 쳐 백신 접종이 필요시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인플루엔
 자 백신은 매년 가을철에 접종해야 하며 보통 세 종류
 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포함하고 있
 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수시로 변이를 일으키므로
 해마다 접종해야만 한다. 인플루엔자 백신을 독감 백신
 이라 부르고 있어 감기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인플루엔자 백신은 다른 바이러스에
 의해 유발된 감기를 예방하는 데는 전혀 효과가 없다.

만성질환자와 면역저하자에게 필요한 다른 백신으

최근 3개월 이내에
 수혈을 받았거나,
 과거 백신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거나,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백신 접종을
 피하도록 한다.

로는 폐렴백신이 있다. 폐렴의 가장 흔한 원인인 폐렴
 알균에 의한 심각한 감염을 예방키 위해 접종을 시행하
 는데, 가장 적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b형 헤모필루스
 균 백신을 함께 접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외에 알코
 올 의존증 환자와 만성 간 질환자도 폐렴 백신을 접종
 하는 것이 좋다. 또한 면역저하자의 경우에는 3~5년에
 한 번씩 추가 접종이 필요시 된다.

끝으로 예방접종을 할 때에는 주의할 사항들이 몇 가
 지 있다. 흔히 몸이 안 좋을 때 예방접종을 하면 안 된
 다고 생각하지만, 고열이 나고 호흡기 증상이 악화되는
 급성기 상황이 아니라면 예방접종을 해도 무방하다. 하
 지만 최근 3개월 이내에 수혈을 받았거나, 과거 백신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거나,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백신 접종을 피하도록 한다.

아직 우리나라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그 이해나 관심이 부족하다. 그러나 가장 싼
 비용으로 가장 확실하게 질병을 막아주는 백신이야말로
 어떤 무엇보다 자신의 건강과 삶을 위한 가치 있는
 투자라 확신할 수 있다. ☺

Samchundang News	삼천당제약 소식	삼천당제약 신제품 정보
------------------	----------	--------------

삼천당제약(주), 제66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삼천당제약대표 김창한은 3월 19일 경기도 향남읍 종합복지회관에서 제66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총에서 삼천당제약은 주당 현금 100원(20%)을 배당기로 하였으며, 전년 대비 12% 성장한 679억 원의 매출과 당기 순이익 52억 원을 달성했다.

김창한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금년에도 제약업계는 어려운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존을 위한 변화와 혁신이 그 무엇보다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전략 과제인 ●경영 목표의 책임 완수 ●원가 절감 ●정도 경영과 투명 경영의 실천에 중점을 두어 매진하자고 강조했다.



고지혈증 치료제 ‘심바로우정’ 출시

심바로우정(Simvastatin 20mg)은 체내에서 콜레스테롤의 생합성을 촉진하는 효소인 HMG-CoA 환원 효소를 경쟁적으로 저해하여, 콜레스테롤 수치를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효과적인 고지혈증 치료제이다. 심바로우정은 관상동맥질환이 있는 고콜레스테롤혈증 환자의 위험성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고지혈증 환자의 LDL-콜레스테롤 및 체내 총 콜레스테롤의 양과 트리글리세라이드의 수치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감소시킨다. 또한 타 스타틴에 비해 HDL-콜레스테롤 상승 효과가 뛰어나 심장병 발생을 예방해준다. 이 밖에도 심바로우정은 뇌졸중 발생 후 복용 시, 병태 악화 억제 및 사망률 감소에 뛰어난 효과를 나타낸다. 복용 즉시 혈관의 경련과 염증 유발 물질을 감소시키고 혈류 장애를 개선하는 혁신적인 치료제이다. 1일 1회 저녁에 복용하며, 약가는 838원이다.

코감기 치료제 ‘슈도에바스트 서방캡슐’ 출시

코감기·알레르기성 비염 치료제인 슈도에바스트 서방캡슐이 출시된다. 슈도에바스트 서방캡슐은 항을 혈제인 슈도에페드린(Pseudoephedrine 120mg)과 항히스타민제인 에바스틴(Ebastine 10mg)의 복합 제로, 감기나 알레르기성 비염의 대표적인 증상인 콧물, 코 막힘의 두 가지 증상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속방형의 에바스틴과 서방형인 슈도에페드린이 복합되어 있어 코감기와 알레르기로 인한 콧물, 코 막힘을 빠른 속도로 치료하고 지속적인 치료 효과 또한 얻을 수 있다. 이밖에 임상실험 결과, 부작용 발현율도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슈도에바스트 서방캡슐’은 환절기에 코감기나 이와 연관된 알레르기성 비염 때문에 고생하는 환자들 의 치료에 특히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 가능하며, 1일 1회 1캡슐, 중증에 는 2캡슐까지 복용 가능하다. 약가는 캡슐 당 391원이다.

삼천당제약(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IRIS+

드라마도 봐야하고...
 뉴스도 봐야하고...
 신문도 봐야하고...
 인터넷도 해야하고...

혹사 당하는
 “소중한 눈
 축축히 관리하세요”